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2018년 4월 8일 초판 발행

펴낸이 이재철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에스라





작성

에스라 1:1-11 | 이성실

에스라 2:1-70 | 이광희

에스라 3:1-13 | 정한조

에스라 4:1-24 | 정한조

에스라 5:1-17 | 정한조

에스라 6:1-22 | 정한조

에스라 7:1-28 | 송호욱

에스라 8:1-36 | 김신년

에스라 9:1-15 | 정재규

에스라 10:1-44 | 김대인

1

고레스의 귀환 공포(公布)

에스라 1:1-11

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
 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
 신 하나님이시라 4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
 니라 하였더라 5 이에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7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와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
 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8 바사 왕 고레
 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9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10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열 개요 그밖의 그릇이 천 개이니 11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의 개관

구약 3대 역사서인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서는 모두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서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서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귀환 때부터 BC 444년 3차 포로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비록 세속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구원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앗수르 제국의 식민 정책은 식

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제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여 다른 민족과 혼합시킴으로써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 정책은 앗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새로운 패자가 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은 BC 605년 처음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1차 포로로 잡혀간 이래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3차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에 이어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한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정책은 앗수르나 바벨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지 국가들에 대하여 강제 이주와 같은 억압 정책 대신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대영 박물관에 가보면, 고레스 왕의 업적을 기록해둔 ‘기념비’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당시 고레스 왕이 여러 민족들을 해방시켜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에게만 특별대우를 해 준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레스 왕이 취한 외교정책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이 취한 외교정책을 신학적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취한 외교정책의 결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바로 이 점에서 구별됩니다. 역사를 단순한 인과 관계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레스의 귀환 명령(1-11): 제1차 귀환

에스라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설명합니다(1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으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전 두 제국의 통치자들과 달리 피정복민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관용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것과 그에 의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은 이미 그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기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일입니다(사44:28¹).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¹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 지리라 하는 자니라

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부와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잠 16:9²).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때때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 역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이며 참 기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미약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 하루하루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만 후회 없

²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나라

는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됨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사무엘, 열왕기, 역대기)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생각이 드십니까?
3. 고레스가 이 땅에 등장하기 16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2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에스라 2:1-70

1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농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리아와 르
 엘리아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왜와 르흠과 바야나 등과 함
 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3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
 이 명ियो 4 스바다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यो 5 아라 자손이 칠백칠십
 오 명ियो 6 바핫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팔백십이 명
 이요 7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यो 8 샷두 자손이 구백사십오 명
 이요 9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यो 10 바니 자손이 육백사십이 명ियो
 11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삼 명ियो 12 아스갓 자손이 천이백이십이 명이
 요 13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육 명ियो 14 비그왜 자손이 이천오십육
 명ियो 15 아딘 자손이 사백오십사 명ियो 16 아텔 자손 곧 히스기야 자
 손이 구십팔 명ियो 17 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삼 명ियो 18 요라 자손이
 백십이 명ियो 19 하숨 자손이 이백이십삼 명ियो 20 깃발 자손이 구십
 오 명ियो 21 베틀레헴 사람이 백이십삼 명ियो 22 느도바 사람이 오십
 육 명ियो 23 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यो 24 아스마웻 자손이 사십
 이 명ियो 25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칠백사십삼 명ियो 26
 라마와 게바 자손이 육백이십일 명ियो 27 믹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
 요 28 벨엘과 아이 사람이 이백이십삼 명ियो 29 느보 자손이 오십이 명

이요 30 막비스 자손이 백오십육 명이요 31 다른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
 십사 명이요 32 하림 자손이 삼백이십 명이요 33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
 손이 칠백이십오 명이요 34 여리고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이요 35 스나아
 자손이 삼천육백삼십 명이었던라 36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
 손이 구백칠십삼 명이요 37 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요 38 바스홀 자
 손이 천이백사십칠 명이요 39 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었던라 40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이요 41 노
 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백이십팔 명이요 42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
 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백삼십구 명이었
 더라 43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44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45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
 손과 악굽 자손과 46 하갑 자손과 사물래 자손과 하난 자손과 47 갓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야야 자손과 48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49 옷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50 아스나 자손과 므
 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51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52 비슬룻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53 바르그스 자손과 시
 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54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던라 55 솔
 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56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갓델 자손과 57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
 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58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의 신하의 자손이 삼백구십이 명이었던라 59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롭
 과 앓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던라 60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
 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육백오십이 명이요 61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
 람 바르실래의 딸 중의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을 따른

자라 62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3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뭇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
 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64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
 이요 65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요 66 말이 칠백삼십육이요 노새가 이백사십오요 67 낙타가 사
 백삼십오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이었던대라 68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곳에 다시 건축하려
 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 힘 지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육만 천 다락이요 은이 오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던대라
 7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
 읍에 살았더라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1-58)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
 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는 인원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42,360명이라고 했는
 데, 이에 속하지 않은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 귀환합니다. 모두 49,897명입니다. 재산의 규모로는 말이
 736, 노새 245, 낙타 435, 나귀 6720마리로 총 8,136마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
 나님은 ‘돌아온 사람들’을 기억하셨을 뿐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십니
 다. 자유인답게 살기 위해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위해 버

려야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가서 살게 될 곳이 어떤지 미리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장 5절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동으로 시작한 발걸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익숙함과 게으름과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이겼습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해 ‘좁은 길을 지나간’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도 길을 떠나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누군가는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2절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리아와 르엘리아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와와 르훔과 바이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아는 그 사람이 맞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등과’ 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도 있습니다. 후대에 불리는 방식과 순서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귀환하는 이스라엘에게 앞서 걸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알려주십니다. 누군가 앞서 걸어가지 않으면, 뒤따르는 이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교훈은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가장 뒤에서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각자를 그룹으로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입니

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자손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서 계수하십니다. 조상이 누구였는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름도 인원도 상황도 다른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보며 교회가 공동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모두 같은 모습이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됩니다. 한 몸에 손이 100개만 있는 것을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서와 저 부서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이 구역과 저 구역의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룹들을 비난하면서 자기 그룹만 진짜라고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과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삶을 나누며 같은 곳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인맥을 확장하기 위해 진을 쏟는 것 보다는, 함께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예물(59-70)

명확하게 약속의 백성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9절부터 63절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약속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비록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거나 제사장이라는 공적인 증거인 우림과 둠뭉이라는 성물을 가진 사람이 발견되기 전까진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제약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온 사람들’로 여기십니다.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스스로를 볼 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정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 제사장인 예수님이 일어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지성물을 먹는 삶, 예배자가 하나님과 함께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중 누군가는 ‘어떤 족장들이’라고 불리며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렸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드렸던 예물은 금이 61,000다릭과 은이 5,000마네였습니다. 금 61,000 다릭은 현재 기준으로 74억원 정도(61,000*은 20배 가치*605원)이고, 은 5,000마네는 17억원 정도(2,850,000그램*605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어떤 족장들’로 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과 그들만의 비밀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교우님들이’, ‘어떤 구역이’, ‘어떤 봉사팀이’, ‘어떤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돌아가겠다고 길을 나선 이들을 각자의 성읍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따라 있어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지금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하시기에, 말씀의 순리를 따라 있어야 할 곳을 향해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뒤쳐진 우리를 품에 안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하루되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분명히 심어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간다' 는 것은 어떤 지점을 향해 방향을 고정하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내 삶의 지향점을 점검해 봅시다.
2.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봐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지, 나아가 타인의 앞과 뒤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3.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편협하고 획일적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4. 교회에서 확실한 신자로 보이지 않는 이를 정죄하거나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분들을 어떤 말과 행동으로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5.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린 '어떤 족장들'을 기억하며, 순수한 기쁨의 헌신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돌아봅시다.

3

초막절 지키고 성전 건축 시작

에스라 3:1-13

1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3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7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읍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8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9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

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10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합성을 지르니 13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 하였더라

비로소 번제를 드리다(1-7)

주전 537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절).

2장에 나온 바와 같이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 일반 회중 42,360명, 남녀 종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 등 모두 49,897명(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귀환한 7월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인데, 지금의 양력으로 하면 9-10월 경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였는데, ‘일제히’의 문자적인 뜻은 ‘한 사람처럼’입니다. 그들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 모임이 특별한 것은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처음 맞는 초막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남미나 유럽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이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서 추석을 맞이한다면,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인데, 그것과 동일합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대제사장)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총독)과 그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2절).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인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예배를 복원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특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혹 삶이 망가진 것 같고,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삶에서 온전한 삶과 관계로 회복되는 첫 출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8-13)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 그룹의 주도로 성전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8절). 그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돈과 두

로의 기술자들도 고용하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는 레위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본래 레위인은 25살이 넘어야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후라 인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여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훌륭하고 멋진 건물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너진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종종 교회 근처에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남은 생애 동안 교회에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사를 하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홍보관 근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가까이로 오셨거나 오고 싶으시다는 의미만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으시다는 소망과 결단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러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었습니다(10-11절).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서로 찬양하고 감사로 화답”하였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인간의 길보다 언제나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인간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고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기초공사가 끝이 났을 때, 그 광경을 보러온 사람들의 반응이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너무 기뻐서 함성을 질렀

고, 또 한 그룹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12-13절).

기뻐 함성을 질렀던 사람들은 무너졌던 예배처소가 이제 다시 생기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고, 대성통곡을 하였던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로 옛 성전과 비교하여 지금 성전의 초라함과 지난 세월 이런 성전도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의 서글픔이 기억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고,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책상에 앉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몸이 아파 쉽게 움직일 수 없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마음만 먹으면 금방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그립고, 그 때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함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초막절 절기가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성전으로 가꾸어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이기심의 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붕괴되어 이방 땅에서, 고국을 향하여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을 때, 과거가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참회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

의 기초를 다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을 때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 때에 오늘에 바르게 예배하고 전심으로 섬기지 못함을 후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리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생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3.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기록된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같이 움직인 것처럼, 당신이 당신의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며,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

에스라 4:1-24

1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4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7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이람 문자와 이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8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9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이바삿 사람과 다블래 사람과 이바새 사람과 이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10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

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11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12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 이제 왕은 아시읍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4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15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16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17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이다 18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19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20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21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2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23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백성의 손을 약하게(1-10)

수십 년간을 보냈던 바벨론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그곳을 떠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 감격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믿음과 삶의 회복을 위해 성전 건축을 감동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상당기간 지어지지 못하다가 약 20년 후에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한 일들이 본문 1-2절에 잘 드러납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다수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내려오다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아시리아)에 의해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앗수르의 에살하돈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앗수르 땅으로 끌고 가는 대신 앗수르 지역의 ‘바벨론’, ‘구다’, ‘아와’, 그리고 ‘하맛’과 ‘스발와임’ 등지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었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의 종교도 함께 수용하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독 스킵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자, 그 소식을 듣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감격적인 초막절 절기 지킨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한 것에 자신들도 동참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스투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답변했습니다. “NO!!!”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북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의 잘못됨에 대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노역을 당하며, 깊이 참회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하는 일은 하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로부터 그들은 성전 건축을 훼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훼방의 방법이 3가지였는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고, 건축을 ‘방해했’고, 뇌물로 계획을 ‘막았’습니다. ‘약하게 하다’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하여 낙심하게 했다’는 의미이고, ‘방해하다’는 ‘일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실제적으로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다’는 ‘실패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향해 떠나려고 하면 떠나려고 하면, 악한 세력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방해공작을 벌이고,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11-24)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계속되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24절). 시간순서상으로 5절에서 24절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은 ‘바사 왕 고레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때가 고레스의 즉위 4년인 주전 536년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때가 약 주전 52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적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주전 536-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기 초만 놓은 채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23절은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고, 성벽 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6절의 아하수에로(역사적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은 왕비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는 상황에서 약 6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7절, 11절, 23절 등에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는 상황에서 약 9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보다 성벽 재건과 관련이 있는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방해받은 일을 이야기하다가 훨씬 후대에 있는 사건인 성벽 재건을 하는 데 방해 받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데는 언제나 반대자들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시대의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대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가 11-16절에 나타납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사람들은 자신들을 ‘신하’라고 표현하는데, 문자적인 뜻은 ‘노예’, ‘종’입니다. 즉 자신들

은 아다사스다 왕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악한 성읍,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나면 “저 무리는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추측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온전한 독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늘 반역을 일삼던 곳이라 이곳을 멸망시켰는데,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다시 그 일이 반복되어 이 지역을 잃게 될 것”이라고 악의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독립을 하는 것보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페르시아의 공무원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해들이 성전 건축 때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박수를 쳐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 전 인격을 의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내 삶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고, 박수를 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나아가십시오.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표현하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사람들은 과거에

우상숭배에 머물러 진리를 향해 떠나지 못했던 삶을 참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길로 떠나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새를 비롯하여 성전 건축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은 목전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순리를 거스르며 인생을 도박처럼 탕진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50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5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리(順理)의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앞으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르흠과 심새를 비롯한 성전 건축을 반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역리(逆理)의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혹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을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오해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어제를 떠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의 성전은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강제노역을 당함은 물론, 나라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영적으로 서글픈 삶을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

나눔께서 기적같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성전까지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반대자들을 만나서 또 난관을 봉착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온전히 섬기고, 우리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가려고 할 때에 혹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우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을 만나게 될 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제를 떠나고 병든 이기심을 떠나는 날이 됨으로 진정으로 새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곳에서 진리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당신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는데 오해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때에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에스라 5:1-17

1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3 그 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4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6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7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8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엮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9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10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11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12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13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14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15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16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7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성전건축 재개(1-2)

바벨론에서 포로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귀국하여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성전건축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성전건축이 끝나게 되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곡된 고소, 고발을 비롯하여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고,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두 사람은 학개와 스가라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히 학개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학1:2-53).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던 것은 그들이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귀국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는 차일피일 미루어, 그 미룸이 1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아직도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성전은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사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판벽한 집’은 ‘판자를 댄 집’ 또는 ‘지붕이 덮인 집’을 의미합니다. ‘나무판자를 벽에 대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화려하게 꾸민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집안 내부를 최고급 원목가구나

³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최상의 대리석 제품으로 꾸몄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붕이 덮였다’는 것은 ‘가건물이 아닌 완성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은 이렇게 초라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너희들의 집은 최고로 꾸미고, 너희들은 완성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미완성의 상태로 두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2절). 두 선지자를 통해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곧 바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가 히브리어로 ‘쿰’(‘소녀야 일어나라’가 ‘탈리타 쿰’)입니다. 그것은 ‘기립(起立)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위해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할 때에 그것이 단지 기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을 실행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이듯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결단하고 실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단의 발걸음은 1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관리들의 탐문조사(3-5)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 등의 관리들을 통하여 적법한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3-5절). 하지만 이번에는 성전 건축 공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전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동행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무리 총명한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총명하지 않더라도 그 곁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대학자가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초등학생과 아인슈타인이나 뉴턴과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조사 결과 보고(6-17)

6-17절은 강 서편 지역의 총독이었던 닷드내와 그의 동료들이 다리 오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8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대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8절)

총독 닷드내 일행이 성전건축 현장을 확인해 보니,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큰(잘 다듬은) 돌과 돌 사이에 잘 다듬은 나무를 넣는 방법으로 성전 벽을 만들고 있었고, ‘부지런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의 의미는 ‘신속하게’, ‘철저히’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사람들은 과거에 반대자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미루어졌다가 오랫동안 방치된 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에는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아주 빠르

게 진행하면서도 대충대충하지 않고 철저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닷드내 일행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는 지를 물었을 때에 유다의 장로들은 11절의 답을 통해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집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집을 회복하려는 것이 성전 건축의 이유였습니다. 다리오왕에게 보낸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17절)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성전을 칙령을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도 다 돌려주라고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왕실 규장각에 있는 문서를 살펴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말로 편지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다가 방해로 받아서 중단된 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기약 없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시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 중에 제 마음을 계속 누르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초심(初心)’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성전건축의 기초를 놓고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그저 아련한 신앙적인 추억으로만 16년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나면 처음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열심은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고 지금은 미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개인도 동일합니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는 열심으로 섬기다가 수년이 지나고 나면, 처음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은 “아- 옛 날이여!”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초심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은 이기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나를 떠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밑가지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과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눈이 멀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바라옵나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 은총에 감사하여 밑가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말씀의 순리에 순종함으로 초심을 회복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건축을 시작만 하고서 16년이 지나도록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등을 통해 말씀을 주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당신의 영혼을 깨워 일어서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4.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이기심에서 떠나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6

칙령 발견과 성전 복원

에스라 6:1-22

1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 매대도 악매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3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 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4 큰 돌 세 켠에 새 나무 한 켠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5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돌지 니라 하였더라 6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7 하 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 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1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12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 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13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닛드내와 스탈보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14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키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5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16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7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열두 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18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19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22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

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칙령 발견(1-12)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미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워주셨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 등의 관리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적법한지 조사가 들어왔고, 유다의 장로들이 고레스 왕이 허락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성전건축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니, 그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닷드내와 스달보스내가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은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을 리가 없고, 혹 내렸다하더라도 틀림없이 분실되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합법적으로 성전건축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다리오왕은 편지를 받고서 왕실문서를 보관하는 보물전각(우리로 하면, 규장각)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메대에 있는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1-2절). 중국 북경에 가면 ‘이화원’이라는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은 크기가 굉장한데, 여의도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화원에는 곤명호라는 인공호수도 있고, 높이가 60미터의 만수산도 있습니다. 그 산은 곤명호를 만들 때에 판 흙으로 만든 산입니다. 그 이화원은 서태후의 여름별장이었습니다. 악

메다 궁은 페르시아 왕의 여름 별궁이었습니다.

발견된 두루마리는 고레스 왕의 조서였습니다. 그 내용이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켤에 새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돌지니라 하였더라.”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조서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물론, 그 경비를 왕실이 다 낼 것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도둑질해갔던 성전의 금, 은그릇들도 모두 본래 제자리에 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희미한 기록이 명확한 기억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렷한 기억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흐릿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이 곧 사실임을 확신하기 어려워집니다. 악메다 궁에서 발견된 조서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도 같았습니다.

그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자신의 조서를 변조할 경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은 물론 집안이 몰락하게 될 것과 성전을 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11-12절).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는 당연히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카운터펀치를 맞았습니다. 성전건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명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성전 복원(13-22)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를 비롯하여 여러 페르시아의 공무원들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고서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3-15절). 마침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종교력으로 12월, 양력으로 2-3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되었던 때가 다리오 왕 통치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16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다시 시작하여 다리오 왕 6년까지, 4년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을 완공하고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립니다(16-17절). 그들은 수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양 400마리, 숫염소 12마리 등으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때 드러진 짐승의 숫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식을 할 때에 드린 짐승에 비하면 약 120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과정을 겪은 후에 드린 제물이라 기쁨과 감격의 크기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성전이 이전에 지은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봉헌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 감격을 유월절까지 이어갔습니다(19-22절). 15절에 의하면,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아달월은 종교력으로 1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치 1월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전건축을 마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월절이 출애굽과 관련이 있듯이, 성전건축 후에 지키는 유월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지키는 유월절이니, 포로에서 돌아옴이 그들에게는

제2의 출애굽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0장과 35장에서 살핀바와 같이 유다의 왕들 중에 유월절을 크게 지킨 두 사람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으로는 불과 2주일 전, 1주일 전입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이 지킨 유월절과 오늘 본문의 유월절 사이에는 1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100년 만에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졌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했기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고, 일반 백성들도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구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신비한 손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서 완성되지 못한 채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어서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닷드내와 스달보스내 등의 관리들이 성전건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조사하다가 그들 선에서 중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닷드내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히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 통수권자

인 다리오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왕은 십 수 년 전에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조서가 있는지, 왕의 보물전각(규장각)을 다 뒤져서라도 찾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가 여름 궁전인 악메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조서로 인해서 성전은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 고비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신비한 손길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날마다 떠나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떠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손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지어 가는데, 전,현직의 페르시아왕들이 주관하는 것 같고, 총독과 관리들이 방해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함께하시고,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신앙인생을 돌아보건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의 역사가 가득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의식하지 못한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해 주십시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였듯이, 우리도 정결한 삶,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손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눈에 보이는 현상과 달리 현상 이면(裏面)에서 신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3. 나는 추한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까?
4.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을 경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왕이 내린 조서

에스라 7:1-28

1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2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 손이요 아히둡의 육대 손이요 3 아파라의 칠대 손이요 아사라의 팔대 손이요 므라웃의 구대 손이요 4 스라히야의 십대 손이요 옷시엘의 십일대 손이요 북기의 십이대 손이요 5 아비수아의 십삼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십사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십오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십육대 손이라 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니 7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이라 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11 여호와와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

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4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15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
 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16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
 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
 가 17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8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19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
 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
 릴지니라 21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테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
 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
 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22 은은 백 달란트까
 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밧까지, 기름도 백 밧까지 하고 소
 금은 정량 없이 하라 23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
 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임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25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이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
 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6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

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27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의 족보(1-10)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얼마까지 못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라의 독려로 마침내 성전은 재건되었고, 약 100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장엄한 장면으로 6장은 마무리됩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3대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게 될 에스라 7장은 제5대왕 아닥사스다 재위 시 이루어진 2차 포로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7년이라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장의 사이에는 제4대왕 아하수세로가 통치하던 시대가 생략되었는데 이 때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에스더서에 기록된 허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사건이 이 시기에 발생합니다.

본문 1절은 에스라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계보가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내 용은 5절까지 이어집니다. 에스라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 아론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예 비해 놓으셨고, 마침내 정하신 때에 그를 등장시킴으로써 모든 시간 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합법적으로 제사장의 지위를 가진 에스라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펼쳐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에서는 6장까지 전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다가 7장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된 에스라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6절)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동포들은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는지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를 바벨론에 머물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를 역사의 한 장면에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6절은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표현은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아니라 신앙적으로 매우 열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학자는 제사장겸 서기관역의 역할을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오랜 포로 기간 동안 부지불식간 삶 속에 형성된 이방적 요소

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앞에서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으며 고위 관리로서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신앙을 회복하는데 힘은 썼지만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아래 있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에스라가 고국에서 실시한 사역을 10절이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역, 연구한 율법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역,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고 실천한 율법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에 근거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려는 에스라의 강력한 의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11-28)

그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11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인정하는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수많은 재물을 함께 보냈고, 또한 현지에서 필요한 것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에서 재판관을 세워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정치적 권력까지도 부여해 주게 됩니다. 막강한 힘을 부여받은 에스라는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민족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목적이 27-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후 16년간이나 중단된 성전 공사를 마무리 하게 하였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지행합일형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나라와 임금을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는 사람을 통해 그 민족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 시대 에스라와 같은 민족을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큰 힘은 있지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지도자나 비록 말씀은 붙들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없는 한쪽으로 치우신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다른 민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씀과 실력이 균형을 이루는 영적 리더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균형잡힌 영적 리더가 간절히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지도자로 내 자신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에 에스라 같은 말씀에 바르게 서서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 내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안녕과 풍요로운 삶을 뒤로 하고, 민족의 각성과 영적 회복을 위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 민족을 가르치고, 새롭게 한 영적 지도자 에스라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영적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나아가는 경쟁의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본을 따르며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지도자가 이 땅에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7장은 페르시아 5대 어느 왕 때 있었던 사건인가요?(1절)
2. 에스라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까?(6절)
3. 에스라의 사역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10절)
4. 평안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에스라는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와 헌신하였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국가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

에스라 8:1-36

1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2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3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키라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백오십 명이요 4 바합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백 명이요 5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아히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삼백 명이요 6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오십 명이요 7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요 8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팔십 명이요 9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백십팔 명이요 10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백육십 명이요 11 베배 자손 중에서는 베배의 아들 스키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십팔 명이요 12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백십 명이요 13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육십 명이요 14 비그왜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붓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었느니라 15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 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 일 동

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6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아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므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17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 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십팔 명과 19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이십 명을 데려오고 20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이백이십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 받은 이들이었더라 21 그 때에 내가 아히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24 그 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25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 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26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육백오십 달란트요 은 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27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다리키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 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두 개라 28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29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3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계대로 받으니라 31 첫째 달 십이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32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삼 일 간 머물고 33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34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 보고 그 무계의 총량을 그 때에 기록하였느니라 35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숫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36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1-20)

에스라 7장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에스라가 앞장서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2차 ‘포로귀환기’

라 부르는 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8장에 소개됩니다. 1-2절을 통해, 2차 귀환자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두 제사장(비느하스, 이다말) 가문의 후손과 왕족인 다윗의 자손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종족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키듯 종족별 족장의 수가 모두 12명입니다. 이어지는 15-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수아하와 강가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귀환자 명단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들의 무리 가운데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15절).

이 때 에스라는 레위 사람을 수소문해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도록 권유하면서 최종적으로 추가된 38명의 레위인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21-23절에서는 고향땅으로 떠나기 위해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24-30절에서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성전 예물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일에 책임을 다하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31-36절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처음 에스라와 함께한 귀환자 명단에는 레위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어왔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때가 1차 BC 605년, 2차가 BC 597년이었습니다. 지금 에스라와 함께 고향을 돌아가는 시기가 BC 458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그들이 바벨론에서 거주한 지 1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처음에 노예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14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 뿌리내리고 정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언어적, 문화적으로 이미 충분히 그 땅 사람들과 동화되었고, 그 나라에 터 잡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산 지 140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문화, 언어, 관습에 익숙해졌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 세대에게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지 8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8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고향의 상황과 그들의 귀환 후 정착과정을 상세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이 지난 현시점에 한 사람의 레위인도 2차 귀환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1차에 먼저 돌아갔던 레위 사람들(341명)의 정착기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생이 뻥한 일에 누가 자진해서 나서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귀환해야 할 명분도, 귀환 후 직면하게 될 상황이나 여건도 모두 부정적이었기에 한 사람의 레위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자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서서, 강권하여 레위인 38명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17-19절). 나중에 이들이 추가로 합류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에 참여할 레위인 38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쉽지 않았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고생이 예상되는 일이나 사람들이 알아보기 못하는 수고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금식기도(21-36)

이어지는 21-23절에서는, 에스라가 고향으로 떠나기 전,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습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22절)라고 자신이 말한 대로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말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과는 동떨어지게 손쉽게 눈에 보이는 타국의 왕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바른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금식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금식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 되었고 에스라의 기도대로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4개월간의 긴 여행 동안 그 많은 사람과 성전에 바쳐질 그 많은 예물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7:9).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해진 환경을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려는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아무도 그곳을 향해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결연히 포기하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으로 떠나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떠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권세와 위치를 떠나 세상 속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권세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세상 속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겿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는 에스라의 기도처럼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도였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히5:74).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

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답을 받으셨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힘입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원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생의 길이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38명의 레위인들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마는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 명단에 등재되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고생의 길이라 하더라도 자원하는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는 에스라처럼 긴급하게, 예수님처럼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찾을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고생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절박하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속에 순종의 길을 걸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원하는 순종의 길을, 절박하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걸어가십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서는 사람이 없는 고생길일지라도 주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만을 의뢰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2차 귀환명단에 포함된 족장들의 계보를 살펴보면 이들의 수가 12지파를 연상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 처음 명단에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3.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절박하게 기도하였다면, 나의 기도에는 에스라의 이러한 절박함과 긴급함이 있습니까?

9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에스라 9:1-15

1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3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겹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 이니이다 7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8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11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12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 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14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방인과의 결혼(1-4)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2차 귀환이 마쳤습니다. 출발과 도

착 사이를 설명하는 자세한 문장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야 했던 그 먼 거리의 여정은 수많은 우여곡절의 문장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을 넘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라는 몹시 충격적인 소식,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1-2절). 이 결혼은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라는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입니다. 즉 그들의 결혼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신과 자기 아들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과의 결합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 있고, 자신이 주체가 된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결합이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 공동체성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율법에서 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잘못된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도 이루어졌고, 성전도 재건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무언가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적인 내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겉만으로 내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형이 좋아 보여도 내면도 외형과 같으리라 볼 수 없습니다. 외형적 열심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외형적 열심이 반드시 내면적 열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 노력만큼 내면을 잘 돌아봄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만큼 내면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포로의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충분히 돌아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나태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첫 반응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3절) 옷을 찢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듣거나 보았을 때 가지는 슬픔이나 놀람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야곱이 보인 첫 반응이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은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예와 자부심,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깎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앉은 모습은 참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행동이 이스라엘이 지은 잘못이 얼마나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하고 심각한 죄임을 알게 합니다.

에스라의 회개기도(5-15)

에스라는 이 반응 후 그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럽고 낮

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6절)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 차마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이유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하며 자신도 죄를 지은 그들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언급을 하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또다시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1~15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범한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고백하며 그 예로 과거 가나안 땅을 언급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기에 구석구석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또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지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으니 이제 주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 하여도 핑계할 것이 없다며 죄를 구체적으로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에서 2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 무겁게 여기고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짓는 죄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

나뉘어져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것은 그 공동체도 나의 몸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두신 그 공동체는 나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하는 곳입니다. 공동체의 죄 또한 나의 죄로 끌어안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스라의 모습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을 꼭 붙잡고 내적 개혁, 내적 성숙이 일어나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게 해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어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두신 그 공동체를 나의 몸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아름다운 성숙을 함께 이뤄가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2차 귀환이 마친 후 에스라가 들은 충격적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라는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4. 나는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볍게 여기고 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5. 나는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들의 아픔과 죄를 나의 아픔과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에스라 10:1-44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2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5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6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7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8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삼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9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삼 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이십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

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
 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
 를 더하게 하였으니 11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
 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12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
 히 행할 것이니이다 13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
 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
 에 할 일이 아니오니 14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기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
 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15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
 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
 들을 돕더라 16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
 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7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18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라라 19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
 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20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댜요 21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웃시야요 22 바스
 홀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내와 마아세야와 이스미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23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리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던라 24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텔렘과 우리였더라 25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와 잇시아와 말기야와 미아민과 엘

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26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맛다냐와 스키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27 샷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내와
 엘리아십과 맛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28 베배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래요 29 바니 자손 중에서는 므술람과
 말룩과 아디아와 아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30 바합모압 자손 중에서는
 잇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
 요 31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잇시아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
 온과 32 베나민과 말룩과 스미랴요 33 히숨 자손 중에서는 맛드내와 맛닷
 디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매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34 바니 자손 중
 에서는 마아대와 아르람과 우엘과 35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36 와냐
 와 므레못과 에라십과 37 맛다냐와 맛드내와 아이수와 38 바니와 빈누이
 와 시므이와 39 셀레마와 나단과 아디아와 40 막나드베와 사새와 사래와
 41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미랴와 42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43 느보 자
 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맛디디아와 사밧과 스비내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
 야더라 44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
 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백성들의 회개와 서약(1-15)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하나 둘 가나안
 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
 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70년의 포로생활
 이 마냥 힘들지만 앓았던 이유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저지
 른 죄악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도 기

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70년이 지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며 옛 영광의 때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쓴 뿌리는 삶에서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 방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취함으로, 과거에 범했던 실수를 다시 신속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과거와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며 에스라는 눈물로 기도하였고, 에스라의 기도에 죄악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1절). 기도한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엘람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나는 오직 주의 교훈을 따라 율법대로 행하자며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2-4절).

지난 죄악을 수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룩한 움직임이 회중들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는 에스라의 결단에, 백성들은 그러하겠다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혼한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 낳은 상황에서 가정을 깨고 이방여인 아내들을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가슴을 찢는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하나 둘씩 반대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14-15절).

이방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16-44)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과 직결되어 있음을 이스라엘은 학습했습니다. 무심코 지었던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음을 배웠다면, 무심코 지은 죄가 다시 가정을 깨뜨리고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알려주는 것은, 죄란 우리 삶에 한번 뿌리내리면 그것을 뿌리뽑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의 참혹함과 고통스러움은 고스란히 죄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악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이방여인과 결혼한 이들을 조사하였고,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이방여인과 결혼했지만,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한 이들입니다. 이 상황을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면 이혼까지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믿음과 신앙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윤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느슨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는 빠르게 확산되어 결국 우리를 패망하게 만듭니다(말2:11-125). 우리 삶의 자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낙심으로 절망스럽고,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

⁵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푼푼이 가는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확고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는 꽃자리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달콤했던 죄가 우리의 삶을 이리도 억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닫아버리며, 적당한 상식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옵소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2. 잘못된 결혼을 수습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묵상해봅시다.
3. 내 삶에도 죄를 용인하는 배경에 자리잡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뿌리뽑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느헤미야



작성

- 느헤미야 1:1-11 | 강요섭
느헤미야 2:1-20 | 유석정
느헤미야 3:1-32 | 백정수
느헤미야 4:1-23 | 이동규
느헤미야 5:1-19 | 정한조
느헤미야 6:1-19 | 정한조
느헤미야 7:1-73 | 정한조
느헤미야 8:1-18 | 정한조
느헤미야 9:1-38 | 이영란
느헤미야 10:1-39 | 김신년
느헤미야 11:1-36 | 정한조
느헤미야 12:1-47 | 정한조
느헤미야 13:1-31 | 박성호

1

그 때에 내가 ...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1-11

1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흠을 것이요 9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축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은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행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서를 들어가며(1-10)

그토록 원하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에스라의 영적 개혁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안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훼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미 준공되었으니 성벽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도 벽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침입자가 들어올 수 있기에 안정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으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하신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왕의 궁전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술 관원은 왕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왕의 신변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맡았기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를 술 관원으로 심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가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심으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를 수산 궁에 미리 심

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서있는 자리도 우연히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그루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그 자리에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자리에 심으셨음을 신뢰하면서 나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성벽의 훼파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4절)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눈물, 슬픔, 금식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은 가슴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의 눈물, 애통의 슬픔, 애통의 금식 이것이 그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애통의 기도가 6-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성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무너진 성벽으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실 때 애통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11)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11절)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왕이라도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5절에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이미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선 부르게 왕 앞에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벽 재건의 비전이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기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로 감당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가장 힘이 넘칠 때 그는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고 끝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느헤미아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기도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내가 서있는 자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하여 나를 심으신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대상의 고통, 무너진 상황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느낀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함께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사명을 찾고 그것을 위해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느헤미야를 수산 궁에 심으신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나를 심으신 이유를 고민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심겨진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무너진 공동체를 보면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여 봅시다.
2. 최근에 무엇으로 인해 애통의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은 아닌지 묵상하여 봅시다.
3.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유혹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4.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크게 본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여 봅시다.
5. 본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세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기도의 내용은 말씀위에 바로 서있는 기도인 것인지 묵상하여 봅시다.

느헤미야의 귀국

- 제3차 귀환

느헤미야 2:1-20

1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 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 그 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

하고 9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1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1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
 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
 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 그 밤에 시내
 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
 이왔으나 16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
 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
 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
 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
 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
 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너희가 왕을 배반
 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1-10)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지금의 11월에 해당하는 기슬르월입니다. 2장 1절의 시점은 지금의 3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4개월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폐허 그대로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조국을 보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비통했을 것이고, 그의 비통함은 얼굴에 수심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한 날은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가운데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 특별히 성벽의 재건을 생각하며 4개월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스라4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술 관원으로서 왕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반하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

도하고, 이내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는 왕의 물음에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계획을 다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흔쾌히 그의 청을 들어주고, 더불어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까지 약속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8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재건할 지에 관하여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결코 기도만 하지 않았습시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11-20)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가지

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 몇 사람과 함께 성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성벽과 성문, 성읍 진입로의 상태가 너무 열악해 말 한 마리조차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 실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성의 상태를 명확하게 분석한 느헤미야는 유다의 제사장들과 귀족들, 방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개인의 원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됨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당신의 대책으로 삼아 유다 예루살렘에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확산력은 느헤미야 주변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이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느헤미야 한 사람을 유다 예루살렘에 심어주시자, 그 결과 폐허였던 유다 예루살렘에 회복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무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 암만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사람 ‘계셈’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입니다. 이들은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성벽재건을 통해 다시 회복된다면,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방해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아는 그들의 방해공작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나갑니다. 느헤미아의 중심과 시선이 그의 앞에 있는 유력자들이 아니라, 선한 손으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했고, 때가 되었을 때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자의 기도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며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늘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옆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며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에 어느 정도 고생과 수고를 각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해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참된 도우미인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 전반에 섭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로삼아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에게 행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만 열을 내지 않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요동치는 나의 감정의 변화 중에도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2. 삶의 자리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 등을 경험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3.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함과 더불어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나의 기도제목 중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4.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묵상하여 봅시다.
5. 주변 사람들의 말과 판단 때문에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여 봅시다.

성벽 재건 역할 나눔

느헤미야 3:1-32

1 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4 그 다음은 학교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트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이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6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7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블라다와 메로눓 사람 아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8 그 다음은 금장색 할해아의 아들 웃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9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0 그 다음은 하루말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11 하림

의 아들 말기아와 바합모압의 아들 핫숨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12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3 골짜기 문은 하논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14 분문은 벵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15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 거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16 그 다음은 벵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17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18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왜가 중수하였고 19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굽이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20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굽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21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트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22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23 그 다음은 베나민과 핫숨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나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4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민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굽이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25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 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

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26 (그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27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28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30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히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1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밧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32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에서 양문까지(1-32)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본문도 없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약 3Km에서 4km 되는 기다란 원형의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벽 재건을 결정하자마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일에 착수했습니다. 총 10개의 문을 복원하면서, 지난 140년 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17절)고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터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단순히 “다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피상적인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 왜 곤경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졌고 황폐해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진단하고, 어떤 것이 재건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셨는지를 깨닫는 것도 분별입니다. 그 분별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중수 즉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건 공사는 양문으로 시작하여 양문으로 마치게 됩니다(1절). 양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할 양이 들어오는 문이며, 거룩한 문입니다. 북쪽에 위치해 외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늘 긴장된 곳입니다. 그만큼 양문은 예배와 직결된 곳이며, 가장 먼저 건축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분별함으로 세우는 삶의 성벽

우리 삶에서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건강 등 여러 부분에서 황폐해지고, 눈물 나게 곤경과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양문, 즉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삶의 무너진 영역의 세워짐과 회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재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은 분별의 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 즉 분별

여기서 나오는 지혜를 가리키는 헬리어 ‘소피아’ 혹은 ‘프로니모스’의 의미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분별을 가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존귀해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3가지 분별을 보여 주었습니다.

첫째, 협력의 분별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벽 재건에는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방인과 전문 직업인들, 성읍 관리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드고아 평민들, 상인들, 여인들 등 각계각층의 각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중 하나는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입니다. 혼자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협력하여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여러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재건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나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때론 눈물 나는 슬픈 환경 속에 있더라도, 절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 나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환경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율의 분별을 보여 주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과 가까운 지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자기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동시간도 줄 수 있었고, 주변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더구나 가족끼리 혹은 그 동네의 이웃끼리 모였기에 일을 수월하게 감당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셋째, 격려의 분별을 보여 주었습니다. 3장에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나열한 것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헌신을 갈채하기 위해서입니다(20절). ‘최고의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격려입니다. 업무와 상황, 관계에서 옳은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덕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은 훨씬 어렵고 중요합니다. 격려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도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 위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말과 행실로 사람의 감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느헤미야처럼 말과 행실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느헤미야로 시작된 이런 분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황폐한 상황일지라도, 우린 각 삶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대책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성벽 재건 시도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거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시선의 분별이 중요합니다. 성벽 재건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 내 삶에서 '무너진 영역, 실패 된 영역, 문제의 영역'에서 반신반의의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시선은, 삶의 무너진 성벽만을 자꾸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좌절과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너진 성벽만 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를 이 자리에 심으시고,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문제와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희망의 성벽 재건으로 가는 새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황폐하고 눈물 나는 힘든 무너진 성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변화와 재건을 위해 일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분별이 세상의 관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내 모습과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진단만 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초석을 놓아 삶의 변화와 문제 해결의 초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변화를 통해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 삶의 재건되어야 할 무너진 성벽(죄, 환경, 문제)은 무엇입니까?
2. 나는 말씀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3. 나는 사람을 지적하는 편입니까? 아님 격려하는 편입니까?
4.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기 위해 해야 할 초석(다짐과 실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 4:1-23

1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4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오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7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3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5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라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꾀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16 그 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9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20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1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 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1-3)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와 대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랏에 대해 소개합니다. 산발랏은 이미 느헤미야 2장 10절에 등장하는데, 많은 정보는 없지만 호론 사람으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도비야 또한 임몬 사람으로 산발랏과 함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근심했다, 기분이 나빴다고 한 것에 비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분노하고 비웃으며’ 온갖 악담을 다 내뿜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7-8절에서는 ‘심히 분노’하여 직접적인 방해 행동을 계획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마음이 더 강경해지고 직접적인 방해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적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며, 무의미성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말씀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유혹과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다양한 형태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생깁니다.

결심하고 성경을 읽으려 하고, 새벽기도에 나오려 하고, 봉사하려 하고, 사랑과 인내의 말씀의 도를 따르려 하는데, 마음을 넘어지게 하고 일없이 분주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를 반복하며 신앙의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참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런 현실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과 함께 사는 말씀의 삶이 방해 받고 진보가 없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4-6)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4-6절). 느헤미야는 간절하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유대인들이 당한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했고,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의 악을 주의 분노로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크고 중요한 은혜 중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창조와 구원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관과 같습니다. 마치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줄이 있어 잠수부가 호흡을 하고 물속에서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아 영혼이 호흡을 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며,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결코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시시콜콜 조잘조잘 다 얘기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의 지혜로 아이에게 응답하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이어지듯 끊어진 인생을 이어주시고, 성벽이 다시 쌓여졌듯이 인생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씀과 함께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방비하는 느헤미야(7-23)

7절에서 23절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산발랏의 공격에 대비해 파수꾼도 세우고, 나팔수도 세워 적의 공격에 대비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를 하던 유대인들 사이에 9-10절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 많은데 힘이 다 빠졌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노래로 퍼진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이며, 위로이며, 복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면서도 낙심도 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두드리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도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성도는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영적 능력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도 많고, 극복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필요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담대하고 강건한 영적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능력이 보이는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가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보이는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가 주시는 영적 능력을 덧입고, 보이는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방해를 받았던 일을 되돌아봅시다.
2. 그리스도인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삶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3. 그리스도인으로 깨울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4.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5. 지금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느헤미야 5:1-19

1 그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2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4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6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8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

치자 11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
 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
 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
 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
 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
 고 13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라도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14 또한 유다 땅 총독으
 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사스다 왕 제이십년부터 제삼십이년까지 십
 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 나
 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사십
 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
 을 하였으며 17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백오십 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
 이 있었는데 18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
 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
 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9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렘주구(1-13)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역할을 나누고, 마음을 다하여 성벽을 재

건해 가는데,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계셈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특히 도비야는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주경야독(晝耕夜讀)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건축도구를 잡고, 또 한손으로는 병기를 잡고서 밤까지 일하는, 주경야경(晝耕夜警)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보는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들이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르짖다’는 단어 앞에 ‘크게’라는 부사까지 첨가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할 때보다 더 어렵게 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_남자들을 지칭’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각 가정에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건강이나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먹어야 하고,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을 때 참 서글픔과 그것을 넘어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들의 그 부르짖는 원망의 대상이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사람 가운데, 흥부처럼 자식은 많고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했던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었으니,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동냥해서 자녀들을 먹여

야 했습니다(2절).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흉년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3절). 흉년의 때에 부유한 사람들은 창고에 곡식들이 많이 있기에 웬만한 충분히 버틸 수 있었겠지만, 작은 집이나 약간의 밭과 포도밭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저당 잡혀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악용하여 부자들이 싼 값으로 집이나 밭을 저당 잡아서, 값 올 때는 고리의 이자를 붙이게 함으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점점 골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밭과 포도원에서 나는 식물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정부에 또 다른 정부에 세금들을 바쳐야 했습니다(4절). 그러니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어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이유는 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무자비한 납세의무, 도에 넘치는 이자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자녀들을 팔아야 했고,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전답(田畓)이 부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5절).

이 때에 느헤미아가 보여준 반응이 6-7절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6-7절)

느헤미아의 반응은 ‘크게 노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노했다’는 것은 느헤미아가 가난한 백성들의 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지배국 페르시아의 공무원입니다. 그에게는 권

력도 있고, 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에 부자들의 편을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분노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쭙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팔렸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동포를 팔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두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줍시다. 그리고 비싼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모두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서약하기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촉구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자기 동족들을 착취했던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悔改)’는 문자 그대로 하면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입니다. 지난 삶을 반성하여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悔)’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회’만을 한 것이 아니라 삶을 고치고 바꾸는 ‘개’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내려놓음(14-19)

백성의 지도자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에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독의 녹을 포기합니다(14절).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인 느헤미야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

니다. 지배국의 관리가 식민지(피지배국)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완장을 차면 달라진다.’는 말도 있고, ‘완장을 채워주면 줄 세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보여도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최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이나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봉급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독이 총독의 봉급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봉급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착취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적정액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지기 위함이었습다.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는 사십 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위관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의 현상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19절) 이 기도는 느헤미아의 자랑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백성들로부터는 봉급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의 몇 배로 채워달라는 생색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아니까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결단입니다.

느헤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이나 임금을 받지 않고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느헤미아에게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면, 느헤미아는 틀림없이 “나는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지위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 분의 눈을 보고 말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 분의 손을 잡고서 말하십시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오늘 하루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해 가는 데는 외부 세력의 방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족이 동족을 누르는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봅니다. 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족과 지도자들 처럼 여유가 있을 때에 그것을 군림의 도구로 삼지 않고, 섬김의 도구로 삼게 해 주십시오.

또한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는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귀족들과 민장(지도자)들과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3.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권면을 듣고서 자신들의 삶을 고쳤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4.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6

성벽 역사가 끝나매

느헤미야 6:1-19

1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 산발랏과 계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3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5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할 바 이런 일은 없는 일ियो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

노라 10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 하
 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
 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
 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
 을 함이라 13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
 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며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5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16 우리의 모든 대적
 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
 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17 또
 한 그 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8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19 그들이 도비아
 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아에 대한 음모(1-14)

성벽 재건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대적자들은 점점 더 교묘하게 방
 해하려고 했습니다(1절). 집 안 거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다 정

리를 하고서 벽지나 페인트칠을 하고서 방문과 창문을 닫는다. 만약 방문이나 창문을 먼저 달아 놓고, 도배를 하거나 페인트칠을 한다고 하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아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랏과 도비야, 계셈 등에게는 느헤미아가 성벽공사를 끝내었다고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소문은 칭찬이든 험담이든 과장(誇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옮길 때,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섞이게 되면 그 내용이 부풀어 오릅니다. 옮기지 않아야 될 이야기는 옮기지 않고, 옮겨야 할 내용은 사실만 옮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소문을 들은 산발랏과 계셈은 느헤미아에게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2절).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여 km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느헤미아는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 만나자는 제안은 자신을 해치기 위함임을 간파했습니다. 만약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결론을 위한 만남 제안이라면, 예루살렘에서 30km가 넘는 곳에 위치한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나자고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이 제안을 거절하는데, 공사 중이라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3절). 느헤미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속셈을 모를 줄 아십니까? 내가 약속장소로 나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나를 없애버릴 계획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아는 “제가 지금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어야 일이 진척이

되네요.”라고 에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발랏과 계셈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자고 재촉했고,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산발랏과 계셈은 5번째 사람을 보낼 때에는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산발랏이 앞의 4번까지는 봉한 편지를 쥐어서 사람들을 느헤미야에게 보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5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풀칠을 하지 않고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인터넷에 공개서한을 올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6-7절). 그 내용인즉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실을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정 시대에 가장 악질적인 모함은 ‘역모(逆謀)’입니다. 역모의 누명을 쓰면 벗어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는 역모를 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강하게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역모를 꾀했노라고 거짓자백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실직고를 했노라며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답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यो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8-9절)

느헤미야는 자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

라 지어진 이야기라고 말하고, 자신이 성벽을 잘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해나 모함을 받게 되었을 때는 아닌 사실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유혹 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0-12절). 하루는 느헤미아가 최근에 잘 보지 못한 스마야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으시다. 성전 외소 안에 숨어야 목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성전 안에 숨자고 말하니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아는 이번에도 스마야 선지자가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그렇게 제안한 것인 줄 간파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전 외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기에 일반인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만약 느헤미아가 성전 외소로 피신하였다가 문을 잠그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 다. 그것을 느헤미아가 꿰뚫고 아는 것입니다.

오십일 만에 끝나매(15-19)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얹이니라.”(15-16절)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이후, 약 140여 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계셈의 집요한 방해와 스마야의 교묘한 계략 등 술한 난관이 있었지만 마침내 대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그 완성된 성벽을 보고, 반대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방해에도 그 일을 이루어 낸 것을 보니 위에서 누군가가 돕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일터에는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또한 신앙생활이나 삶의 자리에는 다시 세우려다가 하기 싫음이나 여러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 흉하게 보이는 성벽은 없습니까? 아니 마땅히 다시 세워 올려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40여 년 동안 세우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처럼, 세우기를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렵게 하다’입니다. 9절,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9절.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 성벽을 재건하려는 손에 힘을 빼려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뇌물과 비방으로 공포심을 갖게 하려는 것에서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비아, 산발랏, 노아다와 같은 사람들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지니라.”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는데, 정작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 세속적인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그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나뉘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반대자들은 5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날조된 내용의 편지를 풀칠도 하지 않고 보내어서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까지도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독안에 든 쥐 신세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모든 반대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행위에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무너진 성벽이 왜 그대로 있는지, 내 삶과 신앙의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 인생의 성벽도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오늘이 그 첫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산발랏, 게셈, 스마야 등은 어떻게 느헤미야를 궁지로 몰아가려고 했습니까?
3. 오늘 본문에는 '두렵게 하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이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느헤미야 7:1-73

1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나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3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빛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5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놓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7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리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와와 느훔과 바야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8 바로스 자손이 이천 백칠십이 명이요 9 스바다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요 10 아라 자손이 육백오십이 명이요 11 바합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팔백십팔 명이요 12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요 13 샷두 자손이 팔백사십오 명이요 14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이요 15 빈누이 자손이 육백사십팔 명이요 16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팔 명이요 17 아스갓 자손이 이천삼백이십이 명이
 요 18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칠 명이요 19 비그왜 자손이 이천육십칠
 명이요 20 아딘 자손이 육백오십오 명이요 21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
 손이 구십팔 명이요 22 하숨 자손이 삼백이십팔 명이요 23 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사 명이요 24 하림 자손이 백십이 명이요 25 기브온 사람이 구
 십오 명이요 26 베들레헬과 느도바 사람이 백팔십팔 명이요 27 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이요 28 벤아스마뻬 사람이 사십이 명이요 29 기랴여
 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사십삼 명이요 30 라마와 게바 사람
 이 육백이십일 명이요 31 믹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요 32 벤엘과 아
 이 사람이 백이십삼 명이요 33 기타 느보 사람이 오십이 명이요 34 기타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요 35 하림 자손이 삼백이십 명이요 36
 여리고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이요 37 로드와 하닷과 오노 자손이 칠백이
 십일 명이요 38 스니아 자손이 삼천 구백삼십 명이었느니라 39 제사장들
 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요 40 임멜 자손이 천오
 십이 명이요 41 바스홀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이요 42 하림 자손이 천
 십칠 명이었느니라 43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이요 44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백사십팔 명이요
 45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
 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두 백삼십팔 명이었느니라 46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47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
 과 바돈 자손과 48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매 자손과 49 하난
 자손과 갓넬 자손과 기할 자손과 50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51 갓삼 자손과 옷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52 베새 자손과 므우
 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53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54 바슬릿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55 바르고스 자손과 시

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56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57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58
 아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59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
 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60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의 신하의 자손이 삼백구십이 명이었느니라 61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
 룩과 앓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62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
 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육백사십이 명이요 63 제사장 중에는
 호비아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불
 린 자라 64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기도 찾지 못하였
 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5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뎀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66 온 회중의 합계는 사만 이천삼백
 육십 명이요 67 그 외에 노비가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
 는 남녀가 이백사십오 명이 있었고 68 말이 칠백삼십육 마리요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요 69 낙타가 사백삼십오 마리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마리였느니라 70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천
 드라크마와 대접 오십과 제사장의 의복 오백삼십 벌을 보물 곳간에 드
 렸고 71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이천이백 마네를 역
 사 곳간에 드렸고 72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이천 마
 네와 제사장의 의복 육십칠 벌을 드렸느니라 73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
 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관리자(1-4)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문짝을 다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서, 거기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흉가가 될 것입니다. 집을 잘 짓는 것만큼이나 지어진 집에 들어가 그 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성벽을 완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과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1절). 이 세 부류는 모두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을 공사를 방해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다섯 번이나 보내어서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5번째 사람을 보낼 때에는 봉하지 않을 편지를 보냄으로 모욕을 주고, 모함을 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스마야마저도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완공했다면, 느헤미야는 응당 최정에 무사들이나 유다 사람들 가운데 기골장대한 사람들을 뽑아서 성벽을 지키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살았던 성전재건과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살피는 성벽 재건은 단지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었

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 성벽 안에 70여 년 전에 세워진 성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관리 책임자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께 헌신되었습니다(2절). 하나님께 헌신된 이유가 그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충성스럽다’는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다’, ‘바른 길, 정도를 걷다’, ‘공평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겨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도 동일했습니다.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기근과 납세와 고리이자로 먹고 살 것이 없고, 전답을 잡혀 세금을 내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때에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움을 통해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합니다.

만약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의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인 수산 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산 궁까지는 약 1,600km 정도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꼬박 4개월이 걸렸습니다. 현대인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의 생-장-피에-드-포르 Saint-Jean-Pied-de-Port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tela까지 약 800km이고 40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가는 길에 잠잘 수 있는 호텔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은 다 실어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수산궁으로 갔던 사람들은 호텔, 음식점, 쉼터는 전무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이 들고 가야 했습니다. 거리도 산티아고 순례기의 2배나 됩니다. 그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니도 하나냐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대자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해가 떠서 날이 완전히 밝은 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잠그고, 반드시 경비하는 사람을 세우도록 했습니다(3-4절).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당을 예쁘게 짓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교회인 사람들의 믿음이 아름답고 신실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100주년기념교회가 홍보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을 잘 가꾸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귀환자들 명단(5-73)

5-73절까지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의하면 그 이름들은 계보대로(가족별로) 등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7절에는 인솔자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38절은 가족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45절에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 레위 지파에 속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60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1-65절에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6-73절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와 예물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계보는 에스라 2장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 ‘에스라-느헤미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권의 책에 이렇게 긴 족보를 2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를 비교하면 페르시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입니다. 그곳에서 수 십 년을 살게 되니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는 땅,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셔서 성경에 2번씩이나 새겨주셨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로부터는 천하게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이라고 여겼기에 그들은 돌아왔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갖 방해가 있었을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 이름을 지금까지 남겨 주셨습니다.

혹시 유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의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삶이 황량하게 보이고, 척박하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으며 섬기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사람들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온

전히 경외하십시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영글 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기록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겨운 명단일 수 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조국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보겠노라고 결단을 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내 소유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내 세속적인 꿈 때문에, 혹 깨어진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성경에 우리 이름을 크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니와 하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뛰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척박하게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사람을 섬김과 하나님을 섬김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잊지 않아,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명단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시고, 당신은 어떤 영적인 명단에 당신에 이름을 새기고 싶습니까?
3. 하나니와 하나나가 충성스러웠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들보다 뛰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4. 당신의 성품이나 자질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시겠습니까?

워터게이트(수문)

부흥회

느헤미야 8:1-18

1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 그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라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잃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이라 13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15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6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18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의 율법 낭독(1-12)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자, 느헤미야는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동생 하나니, 성채 지휘관인 하나냐 등에게 치안유지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그 후에는 내적인 재건인 신앙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7월이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던 문들 중에서 ‘수문’은 ‘정결’과 ‘소생’을 의미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성경)을 갖고 오기를 요청했습니다(1절).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음과 그로 인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커져 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역시 백성들의 요구에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 7:10이 잘 알려 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스7:10)

바른 결심은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결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

¹ 참된 신앙의 성숙은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열떡였나이다.”(시119:131)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7월)에는 여러 신앙의 절기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렸는데, 그날에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며 제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나팔절에 에스라는 새벽부터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2-3절). ‘새벽부터’의 문자적인 뜻은 ‘빛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해 뜨는 시각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각이 오전 6시라면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이나 읽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침 일찍, 새벽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곧 말씀에의 열정과 동의어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해 깊은 열정을 갖지 않고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생활화, 생활의 말씀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습니다(5-6절).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신이라 고백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작다고 여겨질 때에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그리고 허물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포로지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로 번역해 주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오랜 이방 생활로 인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통용되던 아람어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해석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울었습니다(8-9a절).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통곡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 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9-10절)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이란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영원히 멸망 받을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됨도

영원에 잇대어짐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된다고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적인 것이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방파제’,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초막절 준수(13-18)

그 다음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칠월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초막절을 지킵니다(17-18절). 여호수아 이래로 온 국민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약 1,0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초막절을 발견한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무교절, 칠칠절 초막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추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 년에 3번 추수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3대 명절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겨울 보리를 거둘 때의 명절이 무교절이었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의 명절이 맥추절,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때의 명절

이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들은 모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경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또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수확의 성격이 강한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것이 칠칠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 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과 이스라엘 광야생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결합된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인생에도 마지막 추수 때가 있음을 각인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함을 깨닫곤 했습니다.

미국 정치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가, 1972년 6월에 있었던 도청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을 사퇴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스캔들(Watergate Scandal)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한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말씀 집회, 수문 부흥회, 워터게이트 리바이벌(Watergate Revival)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삶을 다해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해서 심으신 수문 앞 광장, 워터게이트 광장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한 것으로, 그 안에서 살게 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오묘함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초막절 절기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수문 앞 광장이 되어서, 각 교회들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당이 수문 앞 광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이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워터게이트 광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초막절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회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워터게이트 광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수문(워터게이트) 앞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장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지켜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을 것인데, 그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삶에서 바꾸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5. 우리의 삶의 자리를 수문 앞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백성의 금식과 회개

느헤미야 9:1-38

1 그 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울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나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7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

심이로소이다 9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
 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
 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
 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
 를 얻으셨나이다 11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
 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3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
 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14 거룩한 안식일을 그
 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
 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
 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6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
 하고 17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
 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시
 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
 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셨사오나 19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
 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
 셧사오며 20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
 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

을 주어 21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밭이 부르치지 아니하였사오며 22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
 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23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
 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
 씌우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25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이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 그들
 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
 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공화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
 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공화로
 건져내시고 29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
 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께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0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
 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 주의 크신 공화
 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

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32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 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33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34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35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36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37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족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8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백성의 금식(1-4)

율법책을 낭독한 에스라는 한 날을 정해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굶은 배움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썼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 친구를 맺었던 이방인까지도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 뿐만 아

나라 하나님을 떠났던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몇 시간씩 말씀을 읽고 죄를 자복했는지 3절이 증거합니다.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3절)

유대인들은 하루를 밤과 낮 각각 사등분씩 모두 팔등분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낮 사분의 일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또한 낮 사분의 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각각 세 시간씩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일에 동일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시간만큼 동일한 시간을 들여 자신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들여 읽고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의 허물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회개의 시간도 깊어지고 진지해 질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시간이 깊어지고 진지해 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정결케 될 것이며, 우리가 정결케 되어갈수록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맑아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백성의 회개(5-38)

4절 이하는 레위 사람들의 인도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회개

기도의 내용을 역사의 흐름 순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은 창조하신 부분에 대하여, 7-8절은 마음이 충성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부분에 대하여, 9-11절은 애굽에서의 고된 노예생활과 홍해 사건에 대하여, 12-21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광야에서의 삶과 시나산에서 허락하신 율법과 율례와 계명에 대하여, 22-25절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 대하여, 26-28절은 사사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29-31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32-37절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견고하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고 풍족한 삶과 물질적 은총을 베푸셨으나 몇 날이 못 되어 이전의 삶으로 돌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오랜 세월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배반하였습니다. 범죄 한 백성에게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들로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을 베푸셨으나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는지를 2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26절)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의미이며, ‘거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역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등졌다’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임으로 주님을 ‘모독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욕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기에 선지자를 해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해하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토록 배은망덕한 백성이었음

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실 수 있는 것은 6절과 7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고 믿고 좇으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언약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단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의 심령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주눅 들게 하는 광풍 앞에서도, 우리의 앞길에 허수아비 디오스쿠로이가 위용을 펼치고 있어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 보고 믿고 좇으며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겉모양만 번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실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좇으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선포되는 말씀을 세 시간씩 듣고 세 시간씩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언어, 어떤 표현으로 찬양하십니까?
3. 주님 앞에 보고해야 할 내 삶의 이력 중 돌이키고 싶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4. 내 삶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5.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 주님께 결단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언약을 세움

느헤미야 10:1-39

1 그 인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3 바스훤, 아마랴, 말기야, 4 핫두스, 스바냐, 말룩, 5 하림, 프레못, 오바다,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7 므술람, 아비아, 미야민, 8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9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10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아, 그리다, 블라야, 하난, 11 미가, 르흠, 하사바, 12 삭굴, 세레바, 스바냐, 13 호디아, 바니, 브니누요 14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샷두, 바니, 15 분니, 아스갓, 베배, 16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17 아델, 히스기야, 앓술, 18 호디아, 하숨, 베새, 19 하림, 아나돗, 노배, 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21 므세사벨, 사독, 앓두아, 22 블라다, 하난, 아냐, 23 호세야, 하나냐, 핫습, 24 할르헤스, 빌하, 소벡, 25 르흠, 하삽나, 마아세야, 26 아히야, 하난, 아난, 27 말룩, 하림, 바야나이니라 28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
 을 쉬게 하고 모든 밭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2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
 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의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
 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
 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
 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
 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족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
 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
 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
 조를 받는 자임이며 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
 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
 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 곧 이
 스라엘 지손과 레위 지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
 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서약한 이름(1-27)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9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에 “인봉 하다” 라는 단어는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적고 밀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내용의 언약 갱신문서에 자신의 이름이나 도장을 찍어 맹세하고 인봉 하여 보관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언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됩니다 (1-8절).

1-8절은 총독 느헤미야를 필두로 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명한 명단 맨 앞에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그리고 영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여 서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13절은 서명한 레위인들의 명단이고 14-27절은 서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28절에 보면 봉인된 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어도 그 외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영적 개혁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무너져내린 자신들의 죄악 된 삶을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쇄신을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름은 우리에게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땅을 밟고 살아가던 많은 사람 중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존재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 영

적개혁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있게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기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분연히 일어나는 주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비록 이 시대가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100년 전 당시 사람들에게 잊혔던 양화진 묘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조명 아래 다시 주목받고 기억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분연히 일어난 주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라에 각인될 것입니다.

그 인봉된 문서에 서명된 이름 중 그 맨 앞에 총독인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으로 시작된 회개와 영적 개혁의 변화는 그 선두에 앞장선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앞장서 개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봉급도 포기하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포기하며 선두에서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성벽재건과 영적 개혁은 이스라엘 전반에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영적 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도록 돕고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려야 할 권리를 하나도 취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

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앞장서
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
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라.”(요일3:16)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느헤미야가 자신의 봉급도 포기하고 자
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포기하며 선두에서 솔선수범하여 이
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
의 목숨까지도 바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분이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
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대오에 앞장서십니다. 솔선수범하여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우리도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예수를 따르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맹세와 결단(28-39)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1) 29절-30절, 자녀들을 이방 백성과 혼인하게 않겠다.
- 2) 31절,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다.
- 3) 32-34절, 성전과 제사를 위한 일에 헌금과 헌물을 드리겠다.
- 4) 35-38절,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
고 십일조를 드리겠다.

위의 네 가지 실천을 구체적으로 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39절 후반 절에 한 문장으로 집약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초토화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뿐이었습니다. 이때 자기 살 집을 짓고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몰두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어찌 너희 집 꾸미는 데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학1:4),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재건되었던 그대로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니, 그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전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영적 쇄신이 내면에서 일어나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결

코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코 죽음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결코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시대 예수님의 몸으로 남겨 놓으신 교회요, 그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는 소그룹 공동체- 구역이요, 가장 작은 교회- 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구역, 가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과 재산까지도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도 이 아침, 다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구역을,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주님 앞에 기록되는 참된 헌신자와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를 본받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앞장서 솔선수범의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와 구역,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물질과 재산도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바른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서약을 요구하신다면 나의 서약서에 담길 내용은
무엇일까요?
2. 지금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여
행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3.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안팎의 거주자들

느헤미야 11:1-36

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3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임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4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웃시아의 아들이요 스기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 손이며 5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 손이요 스기라의 육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 손이라 6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사백육십팔 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7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요엿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리아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 손이요 이디엘의 육대 손이요 여사야의 칠대 손이며 8 그 다음은 갑배와 살래 등이니 모두 구백이십팔 명이라 9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10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

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11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
 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웃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 손이며 12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팔백이
 십이 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리아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키라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오대 손이요 말기야의 육
 대 손이며 13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이백사십이 명이요 또
 아맛새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새의 손자요 므살레뫼트의 증손이
 요 임멜의 현손이며 14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백이십팔
 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15 레위 사
 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솅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
 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16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대와 요사밧
 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17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맛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
 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
 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18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
 두 이백팔십사 명이었느니라 19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문과 그 형제이니
 모두 백칠십이 명이며 20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
 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21 느디님 사람
 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22 노
 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맛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웃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
 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3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
 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24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
 손 곧 므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
 느니라 25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랴트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

하며 26 또 예수아와 몰라디와 벤벨렛과 27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8 또 시글락과 므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9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아르못에 거주하며 30 또 사노아와 아 들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 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31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벤엘과 그 주변 동네 들에 거주하며 32 아나돗과 뇨과 아나냐와 33 히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34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35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 하였으며 36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거주민(1-24)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된 후에, 성벽을 관리하는 감독으로 레 위 사람들과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성채 지휘관인 하나냐를 세 윌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 앞을 경 비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수문(워터게이트) 앞 광장에서 부흥회도 하고, 초막절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 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4,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 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4개월간 기도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 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밤에 뿔뿔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아보았는데, 들은 그대로 성벽은 무너져 방치되어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타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곳

에서는 잔해 더미로 인해서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그러했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 안에서 살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울 인구를 분산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의 굉장히 넓은 땅에다가 신도시를 세운다고 구획은 그어놨는데, 정작 집이 거의 지어지지 않은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7장 4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1-24절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고, 25-36절은 지방에 살게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1-2절)

그 황량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일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여 백성의 10%를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습니다. 아마 뽑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10%를 뽑아서 한양에 살게 했다면 강하게 반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전답(田畓)이 다 시골에 있고, 친인척이 모두 한 마을에 있는데, 그곳을 떠나 낫설고 물설은 한양에서 살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자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곳에 살기를 자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선뜻 나서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 질 정도로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가지로 봉사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교회, 구별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3-9절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이 베냐민 자손 468명인데, 4절이 이리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웃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 손이며.”(4절) 유다 자손들 중에는 ‘베레스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유다 자손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까지 여호수아 앞에서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갈렙이 유다 자손이고, 다윗왕을 비롯한 유다의 왕들과 왕족들이 다 유다 자손일텐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베레스의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입니다.

베레스의 출생은 지금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레스 자손의 명단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468명의 이름이 모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샘플

이 됩니다. 혹 나의 가문이, 내 환경이 좋지 못하여도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7-8절이 베냐민 자손인데, 928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다 자손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사 시대에 베냐민 지파 40만 명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 전면전을 하였다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나눌 때에 남쪽에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10-14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입니다.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팔백이십이 명이요.”(12a절) 그리고 13절에 243명, 14절에 128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이 1,192명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모두 3,044명입니다. 제사장들의 비율이 3분의1이 넘습니다. 그것은 결단의 시기에 제사장들이 본을 보여 헌신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예배)로 섬기는 사람들이니,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5-19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을 보면,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봉사자들의 봉사가 모두 귀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지만, 바깥에서 섬기는 봉사는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고, 모양새가 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 밖’서에서의 봉사가 안에

서의 봉사를 세워줍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당 밖에서 차량안내를 하시고, 예배당으로 오시는 길을 청소하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당 밖이 은혜로워야 예배당 안도 은혜롭습니다.

17절 상반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맛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맛다냐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새번역은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맛다냐는 성가대 지휘자와 기도 책임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는 가장 먼저 찬송가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찬송을 1곡만이 아니라 마칠 때까지 찬송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우님들이 제게 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울컥’하는 감동이 옵니다.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 주는 이정표와 디딤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밖 거주민(25-36)

25-36절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된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은 17개와 그 주변 지역들,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은 15개와

그 주변지역들이라고 합니다. 이곳들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기 전에 살았던 대부분의 지역들입니다. 그들은 패전하여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다시 자신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된 사람들과 예루살렘 밖, 유대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들을 심어주신 곳은 바벨론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든, 예루살렘 밖에 살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손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언제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9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였을 때는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였을 때는 또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는, 그들이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야 했습니다. 또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안에 누군가는 들어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원했고, 제비 뽑힌 사람들이 있었고, 자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을 믿었고, 자신들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탈리타 쿼 하고 계시는 것을 수용함으로, 오늘 하루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된 후에, 그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1-2절 참조)?
2.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묵상해보십시오. 어떤 깨우침이 있으십니까?
3. 예루살렘 성 밖, 유대 땅에 살게 된 지역을 찬찬히 살펴보고 묵상해보십시오. 어떤 깨우침이 있으십니까?
4.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느헤미야 12:1-47

1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2 아마라와 말룩과 핫두스와 3 스가냐와 르훔과 므레못과 4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아와 5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6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7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8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맛다냐니 이 맛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9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10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아다를 낳고 11 요아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12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므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13 에스라 족속에는 므술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난이요 14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15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므라웃 족속에는 헬개요 16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므술람이요 17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대요 18 빌가 족속에는 삼무야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19 요아립 족속에는 맛드내요 여다야 족속에는 웃시오 20 살래 족속에는 갈래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21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22 엘리아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앓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24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갓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5 맛다나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므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공간을 파수하였나니 26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겐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27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28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9 또 벨길갈과 게비와 아스마뿔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31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2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33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므술람과 34 유다와 베나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35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맛다나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 손 아삽의 육대 손 스기라와 36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탈래와 길탈래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37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

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 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38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39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40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41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나와 스가라와 하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42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43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45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46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7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1-26)

오늘 본문에도 어제에 이어서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그냥 뛰어 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읽어야 하니까 ‘겉핥기’식으로 읽고 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 직계조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역사를 공부하다가 역사책에 나의 직계조상의 이름이 나오면 흐뭇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읽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시계로 시간을 재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6절까지의 명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1-7절의 명단은 고레스와의 칙령으로 1차로 귀환할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8-11절은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12-21절은 요야김이 대제사장 시대에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요야김은 1차로 돌아올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아들이자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21절은 제2세대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22-26절은 엘리아십이 대제사장일 때에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1-26절까지의 명단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90-100년 전의 조상들의 명단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자신들이 해방운동을 펼쳤기 때문도 아니고, 비용을 치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돌

아와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3차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먼저 돌아오는 용기를 보여준 조상에 대한 감사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따금씩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나 병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삼상인이었던 서상륜, 이응찬 백홍준과 같은 분들이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1882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을 번역했고, 조선으로 들어와 황해도 대구면 송천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으로 갔던 이수정 선생이 1883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으로 올 때에 그 마가복음을 갖고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교회도 있었고, 성경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은혜와 용기로 믿음을 출발해 주셨던 분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기, 보릿고개를 지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신 분들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지 또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27-43)

성전을 봉헌을 하든, 성벽을 봉헌하든, 예배를 올려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봉헌을 하는 사람들의 정결함입니다(30절). 봉헌을 드리는 사람이 정결함이 최고의 예물입니다. 정결하게 한 순서가 참 재밌고도 중하게 여겨집니다.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성문, 성벽 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 봉사자, 교인, 예배당 안, 예배당 밖 순으로 정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벽 봉헌식은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성벽으로 올라가 성을 뚫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31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중건하려고 할 때에 반대자들이 조롱했었습니다(느4:1-32)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반대자들은 집요하게 성벽을 중건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유다 사람들이 그 성벽으로 올라가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시편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그 폭이 약 9피트(2.7m) 정도였다고 합

²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롯하여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만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니다. 2-3명 정도가 나란히 서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행렬을 시작할 때에 출발을 어디에서 했는지 밝히지 않지만,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후에 돌아보기 시작했던 문인 골짜기 문에서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골짜기 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양문까지 양 방향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한 무리는 분문(糞門)이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한 무리는 반대편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하는 무리는 에스라와 호세야가 선두에서 서서 인도하였습니다.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무리는 느헤미아가 인도하였습니다. 38절은 느헤미아가 뒤에서 따라갔다고 증언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38절) 사실 느헤미아가 없었다면 성벽 중건공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온갖 반대와 모함, 조롱을 이겨내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는 호의호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봉헌식입니다. 그 때에 그는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가서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뒤따라서 갑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앞서서 있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나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르고 좋은 지도자는 앞서야 할 때에 앞서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야 할 때는 기꺼이 뒤서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르고 나쁜 지도자는 앞서야 할 때는 숨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야 할 때는 자신이 앞서서 공(功)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양문에서 성밧기가 끝나고 내려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

로 성벽 봉헌식이 끝이 났습니다. 그 때의 모습을 4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아주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인구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즐거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자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 등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6절의 명단을 기록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준 조상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는 태도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복음을 받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신 조상과 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또한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도 반대자들의 조롱을 이기게 하신 감사와 헌신의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허물어진 믿음의 성벽이 있다면 우리도 세워 올려 가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성벽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참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때를 돌아보고 그 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지금의 교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도 완성이 되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손을 우리도 붙잡음으로, 오늘 하루가 신앙의 절기, 신앙의 명절을 시작하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나 자신의 지금의 신앙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으며, 조상(부모)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섬김을 해 주었습니까?
3.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앞서서 섬김과 남을 앞세우는 섬김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까?
4.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벽봉헌식을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당신의 신앙과 삶의 성벽도 봉헌식을 해야 함에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느헤미아의 신앙개혁

느헤미야 13:1-31

1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4 이전에 우
 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
 으므로 5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
 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
 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을 두는 곳이라 6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
 론 왕 아다사스다 삼십이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
 게 말미를 청하고 7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 명령하여 그 방을 정
 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10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
 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
 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13 내가 제사장 쉘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맛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한
 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
 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
 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
 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
 손에게 팔기로 17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
 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19 안식
 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
 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
 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20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21 내가 그들에게 경
 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잠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
 였느니라 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며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3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26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9 내 하나님이며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0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역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성전 정결과 레위인(1-22)

예루살렘의 멸망(주전 586년)과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타버린

성전재건을 시작으로 유다의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허물어진 성벽까지 52일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백성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성벽봉천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신 23:3-6)이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 반응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3절)

성전에 이어 성벽재건까지 마친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지역에서 함께 섞여 이웃처럼 지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지체 없이 응답했습니다.

성경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함께 시작되었기에 성벽의 재건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끝맺으면 문학적으로나 서정적으로 큰 감동의 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은 성벽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죄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이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6-7절)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를 만나고 온 사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속(죄악)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아십은 예물을 넣어두는 성전 안의 공간(방)을 자신과 이

해관계가 있는 이방인 도비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들이지 말라 명하신 족속이었습니다.

안식일 지킴과 통혼 금지(15-31)

또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받지 못해 자기 밭으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은 장사치들이 더욱 몰리는 장날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벽 봉헌 직후 분리했었던 이방인을 도로 받아들여 결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23-24절).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가 사용하는 이방 방언은 배웠으나 유다 방언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다 방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제사장의 후손도 다른 백성들과 같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28절).

선포된 말씀에 따라 이방인들을 분리해낸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성벽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하던 이방인이 호른 사람 산발랏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의 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율법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백성의 마음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눈에 보이는 성벽재건을 마친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성벽과 함께 무너져 내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건하기 시작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각각의 신앙개혁과정 속에서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본문 14절, 22절, 29절, 31절에 반복해서 기록된 기도의 공통된 내용은 ‘내 하나님이어... 기억하옵소서...’입니다.

여기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헤아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느헤미야는 성전에 이어진 성벽재건의 기쁜 소식으로 끝맺지 않고, 금세 죄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밝히고, 거듭된 신앙 개혁으로 끝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역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쉽사리 잊어버리고, 이내 죄에 물든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양력 새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나름의 신앙적 결단을 했습니다. 불과 한달 보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까?

음력 새해를 맞는 오늘 다시 한 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리며 순간순간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채워)갑시다.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은 매순간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포로 된 민족에게 불 타버린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바

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금세 꺼져버렸고, 그 자리는 익숙했던 죄악들로
이내 덮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리며 기도로 호흡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
님께 적은 보퉁이지만 한걸음씩 나아가는 신앙개혁의 삶의 되게 하여 주
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모세의 책의 내용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있던
이방사람(모압, 암몬)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구별해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2.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아가 백성들의 죄악을 대하는 심정을
보며,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3.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나의 삶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4. 느헤미아가 오늘의 나를 만나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 할까요?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에스더





작성

에스더 1:1-22 | 정인철

에스더 2:1-23 | 최영민

에스더 3:1-15 | 김현준

에스더 4:1-17 | 정한조

에스더 5:1-14 | 정한조

에스더 6:1-14 | 정한조

에스더 7:1-10 | 정한조

에스더 8:1-17 | 임용완

에스더 9:1-19 | 이창호

에스더 9:20-10:3 | 정한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

에스더 1:1-22

1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2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3 왕위에 있는 지 제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
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 왕이 여러 날 곧 백팔십 일 동안
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5 이 날
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
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 6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
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깎아 땅에 진설하고 7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8 마
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
든 궁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9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10 제
칠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11 왕후 와스디
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
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
기에 좋음이라 12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13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14 그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라) 15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어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16 므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어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 아하수어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18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19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0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21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므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22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의 큰 잔치(1-12)

본문은 아하수어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바사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1절은 그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라 말합니다. 구스는 이집트의 남쪽 수단 북쪽 지역을 말하는 데, 「페르시아 전쟁사」를 보게 되면, 아하수어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바사 왕국을 20개 총독부로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20개 총독부 안에 127도의 구획 단위로 나뉘어 다스렸다는 의미인데, 에스더의 저자는 둘 중에 더 큰 숫자를 사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왕국이 더 커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왕 아하수에는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습니다. 그 잔치는 180일, 무려 6개월동안 계속됩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이 잔치를 열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4절을 통해 우리는, 아하수어로 왕이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180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가 마무리되고, 7일간의 추가적인 잔치를 진행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왕국은 수산, 바빌론, 악메다, 페르세폴리스라는 네 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 수산은 봄에 왕이 머무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봄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이 잔치의 장면을 생각해봅시다. 후원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 아래,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잔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장식과 화려한 주안상 이러한 대단한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궁전 안에서 맑은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10절에서는 왕마저도 “주흥이 일어나서” 즉, 술에 취해 흥이 나서 7명의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왕후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동원되는 사람이 7명입니다. 한 명

의 왕후를 치장하고 데리고 오는데 무려 7명이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과도한 사치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후를 데리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11b절)

술에 취해 왕후를 부른 이유는 왕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왕후마저도 왕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페위되는 와스디(13-22)

왕의 의도를 알았는지, 와스디는 이러한 왕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를 주목하게 합니다. 왕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했음에도, 그녀가 나가지 않은 것은 어쩌면 참으로 희한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결국 와스디는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왕후의 자리를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즉 페위됩니다.

에스더서를 마지막까지 보게 될 때, 성경은 와스디와 에스더를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도 왕 앞에 나아오지 않으므로 페위를 당했습니다. 반대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감으로 왕의 호감을 얻게 됩니다. 와스디와 에스더, 모두 왕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

은 에스더가 특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닥칠 위기 속에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대책으로 에스더를 바사 왕국의 중심에 심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에스더 1장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보여주는 화려함과 과장됨이 비단 우리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지금의 세상도 과장된 모습으로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화려한 잔치에서 포로가 되어 자신들을 향해 찾아오는 위기조차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라함과 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변화가의 거리를 생각해봅시다. 그 네온사인 밑에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모습을 뽐내듯, 각자의 멋과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과장과 화려함의 중심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걸모습은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려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통해 하나님은 바사 왕국의 중심에 에스더를 심을 준비하시고 계시듯, 하나님은 과장됨으로 자기만족하고, 화려하게 뽐내는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리들을 심고 계십니다.

화려한 잔치가 계속되었던 바사 왕국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찾아올 것조차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에스더를 심으시며 준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과장됨과 화려함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에 빠져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리 이 시대의 에스더로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 그리고 이 시대 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에 당신의 대책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주의 자녀로 부르심은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에스더의 소명을 감당하길 원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본문 속 잔치의 모습과 화려하고 과장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교하며 본문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2. 이러한 잔치와 같이 과장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지 묵상해 봅시다.
3.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대책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하신 적은 없는지 묵상해 봅시다.
4.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셔서 나를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지 묵상해 봅시다.
5.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어딘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을 둘러봅시다. 하나님의 공휟과 은혜가 필요한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묵상해 봅시다.

왕후가 된 에스더

에스더 2:1-23

1 그 후에 아하수어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2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4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5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아이일의 아들이라 6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7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8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수하에 속하니 9 헤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은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으레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0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

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11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12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
 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
 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3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
 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14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
 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
 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5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정
 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6 아하수에로 왕의 제칠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18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
 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19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20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
 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21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22 모르드
 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
 게 이원지라 23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왕비로 책봉된 에스더(1-18)

에스더 1장에서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대신할 왕비를 찾아야 했지만, 새 왕비를 찾는 일은 당장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에스더 2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에스더였지만 그런 기색없이 에스더의 얼굴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마음과 품행이 곱고 아름다웠습니다(7절). 어느 날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였는데 그 숫자는 약 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한 번의 기회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치장할 수 있는 화려한 장신구들을 다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관리들이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15절)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덜 화려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에스더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빛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본 사람들은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에스더의 뒤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치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에스더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분명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구별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제칠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16-17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의 아내인 왕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후에도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기는 끝났고, 유대의 남은 자는 귀환했습니다.

역모를 고발한 모르드개(19-23)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민족에 대한 채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이것은 훗날 유대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1절-2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법적 소송이나 관료들의 공식적인 업무가 흔히 성문이나 궁궐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왕을 섬기는 공식적 지위를 가리킵니다. 모르드개는 큰 공을 세웠고 이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아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상을 받지 못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습니다. 잊혀질 뻔한 모르드개의 공로를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불이익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11:33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다스리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온통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에스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읍시다. 모르드개의 공로를 잊지 않고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읍시다.

그 주님께서 모르드개와 에스터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그 땅에 심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심겨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림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은혜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말씀되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구별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민족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간 에스더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대한 채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를 심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에스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에스더는 자기 출신을 왜 비밀로 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2.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헤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3.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여 봅시다.
4.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민족에 대한 채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채무감은 무엇인지 묵상하여 봅시다.

3

끓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에스더 3:1-15

1 그 후에 아하수어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끓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5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어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7 아하수어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8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10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12 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3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4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의 음모(1-6)

하나님께서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후로 택함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친척 기간이 되는 모르드개 역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나랏일을 맡은 주요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훗날 유대인들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신 결과였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나라의 2인자로 삼습니다(1절).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에 모든 신하들은 하만을 향해 꿇어 절해야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였으나 모르드개는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이에 하만은 노하여 모르드개를

비롯한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거주하는 유다인을 멸하고자 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일만 달란트를 주고 왕의 반지를 손에 넣어, 조서를 쓰고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합니다.

모르드개 한 사람이 절하지 아니함으로 유대인 모두가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미련하고 우둔한 판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모두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모르드개의 주위 사람들은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의 행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에서 발현된 담대함과 용기였습니다.

유대인 멸절 조서(7-15)

모르드개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하만은 아각 사람, 다시 말해 아말렉 사람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신25:17-19)

출애굽 당시, 아말렉 민족은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대열에서 낙오한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실진대, 아말렉 민족은 연약한 자들에게 무자비한 횡포를 일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고 패역한 자들임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부로 와닿는 듯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아말렉 민족을 너그럽게 대우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 하십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전사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맙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왕으로써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지키지 않았던 사울과 달리 모르드개는 시기적으로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출애굽 당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의 존재를 거부하여 기억에서 지워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만은 천 년 전의 조상들의 태도를 그대로 본받아 오직 자신만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신적 경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개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하만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고 좇으며 순종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르드개 당시 시대와 출애굽 시대의 사이, 약 1천 년의 세월이라는 간격이 무색하리만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과 다짐 뒤에 실천이 뒷받침될 때 증명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이 공간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수천 년의 간극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본모습입니다.

당장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의 위기 가운데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 방도 외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로도 비가 내리지 않는 7일간의 기간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수많은 여정으로 겸손하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에게 오로지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우리 역시, 겸허히 자신을 쳐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좇으며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수천 년이라는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라는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 안에 적혀진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 숨쉬어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욱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 겸손하라고, 인내하며 연단하라고, 겸허히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사울과 아말렉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삼상 15:1-11)
2. 사울과 모르드개 두 사람이 아말렉 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랐나요?
3. 모르드개가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4.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순종하기 어렵거나 외면하게 되는 구절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에스더 4:1-17

1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2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3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4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5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6 하닥이 대궐 문 앞 성 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7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8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9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10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11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

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하니라 12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5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개와 유다 백성의 금식(1-3)

에스더서를 소설의 구조인, 발단, 전개 및 위기, 절정, 결말로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1-2장을 발단에 해당하는데,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3-4장은 전개와 위기에 해당하는데,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가 있습니다. 5-7장은 절정으로, 하만이 처형되고 모르드개가 승리를 얻습니다. 8-10장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결말인데, 유대인의 승리와 부림절을 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다면 오늘의 본문은 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1절) 모르

드개가 알았다고 하는 일은 앞 장인 3:8-91을 가리킵니다.

모르드개가 안 사실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34만kg, 즉 340톤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엄청난 뇌물(현 시가로 약 1조원)을 드렸는지를 알 수 있고, 그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개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쓴 채 대성통곡하며 거리를 지나 대궐문 앞까지 왔습니다. 베 옷을 입고서는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모르드개가 우는 것은 그 상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울면 울수록, 그 의미는 더욱 자신의 존재를 미약하게 느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대성통곡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3절)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도 모르드개와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워 통곡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단지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자기 민족의 당한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¹ 히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흠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 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 교육적인 문제들과 계층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 등을 놓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단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시편 144:15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에스더의 금식(4-17)

그런데 모르드개가 이렇게 통곡하며 거리를 돌아다닌 이유를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 왕비는 몰랐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4절)

에스더는 모르드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매우 근심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심하게 몸을 비틀면서 고통스러워하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갈아입을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개는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며 거리를 다닌다는 사실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닥을 보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모르드개가 대답합니다.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

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터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7-8절)

모르드개가 입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은 3:2에 있는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신적(神的) 경배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원한을 샀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알려줍니다. 즉 에스터는 궁궐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체적이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개처럼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스터처럼 반응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모르겠다고, 나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께 바른 내용으로 기도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닥은 왕궁으로 돌아와 이 그 이유를 에스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에스터의 반응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하니라.”(11절)

당시의 페르시아 왕들은 아무나 허락 없이 자신에게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 제도를 만들어 사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① 왕의 처소로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왕이 피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자신을 죽이려던 내시 빅단과 테레스를 적발해서 처형했습니다. 여러 정적을 가졌던 페르시아왕들에게 그 같은 법이 절대로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또 다른 이유는 왕을 만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더욱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데에 주저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식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에스더는 비록 왕후였지만, 다른 나인들처럼 왕이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초기에 일어났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 때에는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을 것이고, 당일 밤에라도 왕에게 나아갈 기회가 찾아오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걱정하며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답변을 보냅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13-14절)

회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드개는 적어도 하

나눔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절대로 멸망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던 자기 백성을 약속한 기간이 차자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게 하신 1차 귀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문제는 단지 “누가 그 도구가 되느냐”였던 것입니다. 그 도구로 모르드개는 에스터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터는 처음부터 신앙의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에스터의 신앙이 모르드개의 신앙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처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에스터는 모르드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개의 강력한 설득에 에스터가 결심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16절)

온 유대인들이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금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에스터는 절대로 이 일이 자신의 지위나 힘으로 해결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터는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포로의 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러하듯이, 왕비는 그 나라의 최고 가문의 딸이 됩니다. 그러나 에스터의 집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민의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집안도 아니었습

니다. 학자의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에게는 부모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가 있는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개가 부모역할을 대신 해 주었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만의 계략과 같은 일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어느 순간에 자신이 예쁘고, 뛰어난 면이 있어서 왕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자리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흘러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점점 더 흐려져 이방인들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속적 가치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혹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빠른 길이 뻗히 보임에도 돌아가는 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임을 믿고 나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갖지 못한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진 많은 외적인 것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해 주고, 자신의 자신됨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그는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만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누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하루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모르드개를 비롯하여 수산에 사는 온 유다인이 금식하며 대성통곡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상황을 말할 것을 촉구하며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 때를 위함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개,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는 일들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 5:1-14

1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3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4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5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6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7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8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9 그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12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14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1-4)

모르드개는 온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악한 계략을 알고서, 왕후이자 자신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녀가 전면에 나서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모르드개의 간곡한 요청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일을 금식한 후 아하수어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2절)

아하수어로 왕은 왕비 에스더가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왕궁 안 뜰에 있는 것을 보고서, 쥐고 있던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금규는 고대 페르시아 왕들이 사용하였었는데,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금 지팡이나 금지시봉과 같은 것으로서, 왕권과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는, 경호원들에게 보내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아하수어로 왕이 뜰에 있는 에스터를 보고서 금규를 내밀었던 것은 뜰에 서 있는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에스터가 그 날만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최근에 왕에게 나아간 것이 30일 전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 번 뜰을 거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뜰에는 에스터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산궁의 내명부에 이름을 올린 많은 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에스터보다 더 좋은 집안의 딸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누구도 아닌 에스터를 보고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왕이 에스터에게 금규를 내밀었던 것은 그녀가 단지 외적으로 아름답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에스터에게 왕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제삼일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삼일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에스터와 온 유대인들이 금식한 마지막 날입니다. 금식은 단지 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응답받기 위한 때를 씀도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음식을 금한다는 것은 내 힘의 근원이 음식이나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겠다는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터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3절) 에스터를

보고서 기분이 좋아진 왕은 바라는 것이 있는지, 요청이 있는지를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은 왕이 기분이 최고일 때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생각 없이 내뱉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잔치를 벌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세례자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5-14)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에스더에게, 왕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인 에스더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최적의 설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에스더가 “아! 나와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곧 바로 마음에 담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혹 괜찮으시면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왕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불러서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6절) 아하수에로 왕이 또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

라도 떼어 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스더의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까 내밀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내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는 왕이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요청은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왕께서 저를 예쁘게 봐 주신다면, 내일도 잔치를 열어서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두 분이 한 번 더 와 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참 지혜롭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릴 결정적인 때를 찾고 있습니다.

그날, 하만은 기분이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궐문 앞에 있는 모르드개를 보고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언짢았습니다. 자신은 최고의 잔치, 왕후가 초대하는 격조 높은 연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굵은 벼옷을 입고 머리에 재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모르드개를 보는 것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꼭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벼폰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11-12절)

이 말씀에서 하만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자기 자신의 삶의 근거(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3가지로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기의 큰 영광’이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막대한 재산_{vast}

wealth'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이 자신을 돋보이게 해 준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녀가 많은 것'도 자신을 과시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9:14에 의하면, 그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해 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셋째는, '지위'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관직이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신하들 중에서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방에서 최고라고 해도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13절) 하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는 모르드개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과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큼니다. 하지만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만과 같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목말라하며 인생을 탕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만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돋보이도록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재산, 자녀, 지위는 전부 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만에게는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줄만한 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일시적으로 자기를 돋보이

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것들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짙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만이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목말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못하고, 되고 싶은 것이 되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에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가진 후에 겪게 되는 허무함보다, 누리지 못함이 또 계획대로 되지 못함이 은총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에스더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신실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갖지 못한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 이루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수용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더욱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갖지 못한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진 많은 외적인 것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해 주고, 자신의 자신됨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그는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만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누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하루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한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에스더는 자신의 마음속의 소원을 적절하게 말하기 위해서, 왕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행했습니까?
3. 하만이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의 자신됨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만처럼 외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러러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에스더 6:1-14

1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4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5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7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10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

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
이 하라 11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
을 태워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
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12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
가서 13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
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14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1-9)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에 이은 버금자리를 차지하
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신하 중 최고의 자리뿐만 아니라, 뇌물로
은 10,000달란트(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를 바칠 정도로
막대한 부도 있었고, 아들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단 한가지, 더 정확하게는 그를 몹시 분노하게 하는 한
가지는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드개가 속한 유대인들을 모
두 몰살시킬 악하고도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계략에
는 그의 아내와 친구들도 함께했습니다. 에스더 5:14의 증언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50규빗 높이의 나무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개를 달도록 조언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여긴 하만은 나무장대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1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약 45cm 정도입니다. 그래서 50규빗은 약 22.5m입니다. 그 정도면 아파트 높이로 약 8층에 해당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나무장대를 준비하게 했다는 것은, 모르드개에 대한 증오심이 그만큼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서 8층짜리 나무장대를 세웠던 날 밤, 아하수어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은 낮에 에스터 왕후가 연 잔치에 참석했었습니다. 음식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술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이 쏟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갖고 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었습니다(1절). 그 때에 읽은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어서 소개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2-3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죄는 역모입니다. 역모는 대통령이나 왕을 국가의 최고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모르드개는 빅다나와 데레스의 역모를 미리 알고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어로 왕은 모르드개가

역모를 고발하고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 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르니라.”(4절)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개를 나무장대에 다는 문제로 왕궁 뜰로 들어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후인 에스더도 왕이 불러야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만은 언제라도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특권을 누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왕이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6절)

하만은 왕의 물음에 ‘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만의 모습을 표현하는 정확한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다.”

왕이 특별히 대우하여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밖에 없다고 생각한 하만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임금님의 말을 타게 하여서, 성 안 거리를 다니며, ‘임금님께서 높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신다.’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말을 타고 거리를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역전의 시작(10-14)

그 때에 왕이 이른 말을 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내색을 할 수 없음은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개는 말을 댔고, 하만은 마부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만은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서 집으로 돌아와 당한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포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13-14절)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하만은 이번에도 아내와 친구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비관적인 전망만 내어놓았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에스더가 베포 잔치에 급히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 입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언약, 성전과 같은 신앙적인 용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길을 오묘하게 내미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한 내용들이 구석구석마다 있습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등극(登極)한 것을 기념해서 페르시아의 장군들과 귀족들, 지방 총독들을 모두 왕궁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는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의 마무리 지점에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녀를 초대했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음에도 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는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와스디 왕후가 나왔다면 에스더의 간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페르시아의 왕후는 귀족의 딸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귀족이 아니라 포로민의 자녀에다가 고아였습니다. 그럼에도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개가 왕의 시해 모의를 미리 알고 알려 막았습니다. 그 내용이 궁중실록에는 기록되었지만 그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 후에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

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읽히게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산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최측근 신하들을 불러서 술을 더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에 궁중실록을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궁중실록 중에서 신비하게도 모르드개가 공적을 세운 부분에서 멈춰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모를 고발했음에도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고, 상을 주어 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만이 대궐문 안으로 들어와 어전(御殿)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고,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들입니다.

출생의 순간으로 보면, 에스더는 그 누구보다도 불행하게 보입니다. 포로민의 딸이고, 부모마저 없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에스더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불행하게 보이는 출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더해지면 그 어떤 화려한 출발보다도 풍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역모를 고발하는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더해지니 온 민족을 살리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보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들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더해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때로 내 출발이 좋지 않아보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

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또 때때로 내가 산 삶의 결과를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한 것 같아, 내 손에 쥐게 되는 것이 적게 보일지라도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오묘한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 속에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도 참 신비한 일이고, 그림에도 너무도 또렷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가득한 것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접붙여진 것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오묘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날 때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못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더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결과가 예상보다 적거나 작아도, 그것을 인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갖지 않게 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덧입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모 르드개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모르드개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고서도 처음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민족을 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유익으로 끝을 맺게 된 일은 없습니까?
3. 하만은 왕이 높이기를 원하시는 자신이라고 단정하여 생각하였다가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당신에게 그와 같은 경험은 없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만의 죽음

에스더 7:1-10

1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2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나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5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았이더라 8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결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찌더라 9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

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1-7)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속담처럼 하만의 권력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을 제외하면 페르시아에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막대한 부도 갖고 있었고, 자녀들도 많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비한 손을 내밀어 행하기 시작하시자, 하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2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90-100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하만의 인생건물은 누구보다도 높아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무너짐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탈 줄 알았는데, 모르드개가 주인공이었고, 자신은 마부였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친구들에게 지혜를 구했지만 비관적인 견해만 내 놓았습니다.

하만은 받은 충격을 정리하기도 전에, 자신을 데리러 온 내시들을 따라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술이 한잔두잔 들어가자, 에스더에게 요청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다시 ‘나라의 절반’을 언급했습니다(2절). 이것은 세 번째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왕의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겿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세 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숫자 3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곡하게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숫자 3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얹어 간곡하게 기도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에스더에게 간절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이 제발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바뀐 듯합니다. 왕의 요청에 에스더가 이룬 말이 3-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 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3-4절)

에스더의 간청은 “현재 유다 사람들이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에다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말을 할 때의 마음은 모세와 사도 바울의 심정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귀고리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차용하여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멸하고 다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에 모세는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냈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내 동족, 내 민족을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에스터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터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터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5-6절) 5절 앞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왕이 왕후에게 물었다. 그리고 왕이 에스터에게 물었다.”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아주 당황하고, 분노차서 말을 잘 잊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꾸민 사람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아내인 왕후를 돌보지 못한 자괴감이 함께 물려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분노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하만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일 것이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마른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안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8-10)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행동에 더 화가 났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찌더라.”(8절) 하만이 걸상 위에 엎드려, 에스더에게 살려주기를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멀리서 볼 때는 마치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후에게는 왕을 제외하고서는 최소한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동일하게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왕이 안뜰로 나갈 때에 하만도 함께 나갔어야 했는데,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하만이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것은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더 이상 빛을 볼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9-10절)

내시 하르보나는 왕에게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 만든 높이 50 규빗(아파트 8층 높이)의 나무장대가 하만의 집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나무장대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분노가 그쳤습니다. 하만은 그 나무장대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릴 때에 거기에 자신이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만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는 속담이 생각이 나고, 잠언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말씀도 떠오릅니다.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의미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이 아무리 붉고 예쁘게 보여도, 그 꽃이 열흘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또 어디서 발견되는지 잘 압니다. 만약 그 꽃이 1년, 2년 후에도 계속 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의가 없게 여겨지겠습니까? 또한 10년 동안 지속되는 권력이 없다고 해서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지상과 방송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 우리가 있

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신앙은 매일 새로워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다는 것을 잊으면, 바로 내가 하만이 됩니다.

우리가 본래 하만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만이 나무장대에 달리고서 아하수어로 왕의 노함이 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만과 같이 나무에 달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달려 죽어주시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금의 삶의 자리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하만의 길이 아니라 에스더의 길을 따라서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개와 에스더, 하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지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그림처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르드개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온갖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포자기할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혹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자리에서 겸손히도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만과 같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한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아하수어로 왕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의에도 두 번째 잔치에 나오시기를 요청하는 에스더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3. 하만은 모르드개를 달기 위해서 만든 나무장대를 만들게 했지만, 거기에 자신이 달리는 모습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4. 우리 대신 십자가(나무장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유다인의 구원

에스더 8:1-17

1 그 날 아하수어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2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3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5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6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 하니 7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9 그 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백이십칠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10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11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3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14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15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겹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의 구원의 조서(1-11)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누렸던 하만은 하늘 높이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자기 장대에서 말입니다. 순식간에 하만의 인생이 거품처럼 꺼지고 만 것입니다.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 에스더에게 줍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날로 유다 사람

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1절, 새번역)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해 범죄자의 재산은 왕에게 몰수되었습니다. 왕실에 환수된 하만의 재산을 아하수어로 왕은 에스더에게 준 것입니다. 이는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잠13:22, 새번역)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만은 허망하게, 그리고 쓸쓸한 파멸로 끝을 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만이 남기고 간 조서, 즉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꾀한 조서가 문제입니다. 5절을 보면,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미 공포된 왕의 조서는 번복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만이 꾀한 조서가 잘못된 조서일지라도, 그 조서의 철회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급하게 에스더는 다시 한 번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6절)라며 간청하는 에스더의 통곡에 왕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기막힌 반전입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8절, 새번역)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일임을 합니다. 전권을 줍니다. 이제 새로운 왕의 조서가 작성되고 반포됩니다. 이미 공포된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도륙 당하고 진멸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9-4:3). 그러나 반전입니다. 새로운 조서를 통해 유대인들이 진멸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진멸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11절).

유대인의 기쁨(9-17)

유대인들을 구원할 이 새로운 왕의 조서가 매우 급하게, 그리고 빨리 모든 지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14절) 이 반전의 이야기에 배경 음악이 있다면, 경쾌하고 당당한, 승전고를 울리는 음악임에 분명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자 위대한 승리입니다. 각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각 성읍마다 승리의 팡파르 소리가 가득합니다(16절).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2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흥미롭게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유일합니다. 마치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당시 상황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부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듯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언급을 감춥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부재하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잠잠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라는 당신의 종을 통해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살아계셨습니다. 마치 우연치

럼 보이는 에스더서의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만방에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둘째, 멸망의 날이 도리어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멸망의 날을 원수들을 응징하는 승리의 날로 전환시키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 그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된 인생이 우리 맞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그렇게 멸망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앞둔 우리 인생 앞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엡2:4-5) 그리스도로 인해 멸망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2)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우러러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말입니다. 그 때도,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내 앞의 상황이 답답하고 아픈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겸손하게 우러러보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하만의 권력과 허무하게 사라지는 하만의 재산을 보며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2. 멸망의 위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새로운 왕의 조서가 작성되고 반포됩니다. 신속하고도 경쾌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도 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연되어 짜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겸손히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지 않으시렵니까?

마침내 실현된 하나님의 심판

에스더 9:1-19

1 아달월 곧 열두째 달 십삼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2 유다인들이 아하수예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3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4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5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6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 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7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8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9 바마스다와 이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 10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1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12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13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

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14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15 아달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또 삼백 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7 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십사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달월 13일”

마침내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주도했던 조서대로라면, 이 날 하루 동안 유대인이 죽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가 주도하여 반포했던 조서 때문에 이 내용이 뒤집혔고, 유대인이 오히려 이날 하루 동안 자신들의 대적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1절).

하나님은 하만의 악한 계략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왕과 제국을 향한 충성심으로 포장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왕의 조서로 현실화되고,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되는 과정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예레미야를

통해 해주신 약속,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렘 30:16²)은 휴짓조각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만이 주도한 조서가 반포된 날부터 모르드개가가 주도한 조서가 반포된 날까지 대략 70일의 기간은, 유대인의 숨은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마음껏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처음의 조서를 기반 삼아, 유대인의 대적자들은 호기롭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70일 동안 매우 의기양양하게, 유대인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70일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무심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70일 동안 대적자를 확인한 다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아달월 13일이 다가왔고, 우리는 그 악을 송두리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왕이 있고, 무고한 이민자나 피지배인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며, 스스로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가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조직과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탄식하며 울며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작은

²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힘으로는 이런 거대한 악을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간은 자신들의 악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70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고, 믿어, 그가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역기능적인 조직과 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 역기능까지도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바라보며, 언젠가 이르게 될 아달월 13일, 곧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음을 알고 그 날을 기대하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심판의 온전한 도구가 된 유대인

모르드개가 주도한 새로운 조서에 명토박힌 대로 아달월 13일이 되었을 때, 수산을 비롯한 페르시아 전역에서, 밝히 드러난 대적자들이 처단 당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16절)

75,000명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상비군이 15만 명, 인구는 약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인구는 곧 국력입니다. 전 국민의 0.15%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했다고 하면, 이는 나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타협이 없고, 늦추어짐도 없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 심판의 도구로, 페르시아 군대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유력한 민족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조서는 대적자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조서의 내용과는 달리,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의 기자가 이를 10절, 15절, 16절에 걸쳐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아울러 수산에서 죽인 500명을 언급하면서, 7절에서 9절을 할애하여 하만의 열 아들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전사자를 확인하듯이 하만의 열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 자손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은 언급하고,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에스더 기자의 진술을 통해 우리는 자연히 사울의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조상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떤 노략물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살려두지 말아야 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개를 비롯한 유대인은 심판의 도구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며 살아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맛보았을 때는,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합니다. 수산은 이를 동안 부림절이 진행되어 이를 뒤인 아달월 15일을, 나머지 다른 지역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17-19절).

존귀하게 된 모르드개

모르드개는 하만의 칙령을 뒤엎는 조서를 반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서를 직접 수행하여 유다인을 미워한 자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심판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취해도 될 법한 재물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르드개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3-4절)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다인들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세상적인 방법의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도

구가 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한층 더 고차원적인 삶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삶의 모양을 닮지 않으며, 오직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이를 보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이사 세상의 못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두렵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고, 삶속에서 이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수준을 목표로 삼아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합니다. 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삶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있을 때에야 비로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마침내 일어서셔서 악인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

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하만의 열 아들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10절; 삼상15:8-9)
2. 모르드개를 비롯한 유대인이 대적을 무찌를 때, 반복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10, 15, 16절)
3. 나의 인생 기준은 “왕의 조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4.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에스더 9:20-10:3

20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1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22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23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24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7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29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30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백이 십칠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31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32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1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2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20-28)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아달월 13일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그 재산을 모두 빼앗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21-22절)

만약 하만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아달월 13일은 유대인들이 몰

살되는 날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했다면 14일과 15일은 유다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날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날이었어야 할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초상날이 되었어야 할 날이 잔칫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제2의 생일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날을 그들은 혼자서 즐거워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어서 의미를 되새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날이 공동체의 날이 되고, 민족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아무리 큰 기쁨의 날이 있어서도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의미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이 없으면 이내 의미 없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일, 세례일,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날에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식사를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그 날의 가치는 신앙의 의미로 승화되게 됩니다.

뒤이어 나오는 26-28절이 에스더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부림일(부림절)이 제정된 연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자들을 제거한 다음 이틀, 잔치를 열어서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아달월 14-15일을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 부림절을 폐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부림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부림절(Purim)’은 ‘부르(pur)’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르’는 ‘제

비 뽑기 또는 주사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죽음'을 정하는 주사위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정하는 주사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절은 우리를 죽음의 날에서 생명의 날로 바꾸어주신 날입니다. 6면으로 된,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1입니다.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둘 다 1이 나올 확률은 1/36입니다. 주사위 10개에다가 1에는 생명이라 쓰고, 나머지 5면에다가 죽음이라고 쓰고서 10개를 던져 전부 '생명'이라 쓰인 것이 나오면 살려준다고 할 때에, 그 확률은 6,000만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10개를 던져서 '생명'이라고 쓰인 글자 10개가 나란히 1줄로 세워지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적적인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음의 주사위'를 '생명의 주사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아니 나를 말입니다.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10장)

에스터서의 대단원의 막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아하수예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예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10:1-3)

모르드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밝혀줍니다.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의 버금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본래 하만이 있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모르드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 자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차지하게 되는 자리인, 직장에서의 자리, 기관에서의 자리, 단체에서의 자리,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리인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남편이나 아내의 자리 등이 모두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오를 때보다 내릴 때 더 아름답고 의미 있어야, 지금의 자리가 빛이 납니다.

모르드개는 존귀한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는 유대인들의 이익을 도모했고, 안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사용했기에, 그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닫으며...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3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1. 한 신앙인이 바르게 서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

에스더가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곁에 모르드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민의 딸이었고, 부모마저 없었습니다. 그러했던 그녀가 귀족의 딸만이 될 수 있었던,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이지만, 모르드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살고자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卽死 必死卽生)’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는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면서, 3일 금식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될 수 있게 된 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중고등학교 때에 저를 인도해준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책을 써 주어서 그 책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첫 사역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제가 여러 사역으로 교우님들과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가 저를 키워주고 인도해주었음도 깊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2.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하만의 전반전은 얼마나 높아 보였습니까? 그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에는 그의 권력의 자리가 높았다면, 후반전에는 그의 머리가 50규빗(약 22.5m)의 나무장대에 높이 달렸습니다.

에스더의 전반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후반은 왕후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가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전반전도 그저 대궐 문지기의 신분이었고, 하만에게 몹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빅단(빅다나)와 데레스의 역모를 고발하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신비한 손길을 내미시자, 그의 후반전은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과 부족함,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승리자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에스더 속의 일이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우상숭배가 난무하

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너무도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라든가 어디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정과 일터, 섬김의 현장이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늘도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서 오묘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마르튀스가 되고,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휘페레테스가 되면, 바로 우리가 21세기의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의 종국에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르튀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아보는 휘페레테스의 삶을 살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믿음의 승리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결과

를 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 결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신실하게 살아, 우리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은총을 누리는 이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부림절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절기는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3.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은 누구입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는 마르투스(증인)와 휘페레테스(종)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